
한국융합인문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인간중심 사회와 선진국의 조건

- ▶ 일시 : 2014년 10월 25일 (토), 14:00~17:30
- ▶ 장소 : 고려대학교 대학원 401호
- ▶ 주최 :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Humanities

한국융합인문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세부일정]

- ▶ 일시 : 2014년 10월 25일 (토), 14:00~17:30
- ▶ 장소 : 고려대 대학원 401호

제1부 학술대회 | 인간중심 사회와 선진국의 조건 [14:00-17:00]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 : 소인호 (청주대)
14:10-14:40	주제발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항공기 승무원의 리더십과 승객안전 :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 발표 : 장석우 (극동대) • 사회 : 이소영 (한중대) • 토론 : 박승민 (한국국방연구원)
14:40-14:50	휴 식	
14:50-15:20	주제발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모순 : 재정개편과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발표 : 권진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회 : 이소영 (한중대) • 토론 : 박보영 (극동대)
15:20-15:30	휴 식	
15:30-16:00	자유발표	<p style="margin: 0;">자유민주주의의 역설적 성격에 관한 고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조한상 (청주대) • 사회 : 이소영 (한중대) • 토론 : 소인호 (청주대)
16:00-16:10	휴 식	
16:10-16:40	대학원 세션	<p style="margin: 0;">공간의 글쓰기, <운영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유요문 (고려대 대학원) • 사회 : 양윤모 (극동대) • 토론 : 정상원 (고려대 대학원)
16:40-17:0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 : 소인호 (청주대)

제2부 정기총회 [17:00-17:30]

- 의장 : 부회장 양윤모(회장 권한대행)
- 사회 : 국문편집이사 박보영

1. 성원보고_ 국문편집이사 박보영

2. 제1차 정기총회 개회선언_ 부회장 양윤모

3. 학회장 인사_ 부회장 양윤모

4. 학회활동 보고_ 국문편집이사 박보영

5. 안건 심의 및 의결_ 부회장 양윤모 / 국문편집이사 박보영

- 제1호 안건 : 2013~2014년 회계결산 보고 및 추인
- 제2호 안건 : 2014~2015년 사업계획안·예산안 보고 및 승인
- 제3호 안건 : 기타

6. 기타 안건 토의_ 부회장 양윤모

7. 폐회선언_ 부회장 양윤모

[목 차]

2014년 추계학술대회 | 인간중심 사회와 선진국의 조건

▣ 주제발표 1

여객선·항공기 승무원의 리더십과 승객안전 :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7

▶ 장석우(극동대)

▣ 주제발표 2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모순 : 재정개편과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23

▶ 권진욱(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자유발표

자유민주주의의 역설적 성격에 관한 고찰 37

▶ 조한상(청주대)

▣ 대학원 세션

공감의 글쓰기, <운영전> 55

▶ 유요문(고려대)

주제발표

인간중심 사회와 선진국의 조건

[주제발표 01]

여객선·항공기 승무원의 리더십과 승객안전

: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 장석우(극동대)

[주제발표 02]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모순

: 재정개편과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권진욱(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여객선·항공기 승무원의 리더십과 승객안전 :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장석우*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종 간 정치적, 종교적 이념을 뛰어 넘는 화해 무드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 조류로 인해 지역 간 혹은 국가 간을 오고 가는 여행객들은 육, 해, 공을 망라하는 이동 경로를 통해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전 세계 관광객이 10억8,700만 명에 달하였으며 여행 목적은 휴양과 레저 52%, 건강·종교 27%, 비즈니스 14%, 기타 7%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4)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요 이동수단인 운송수단 또한 지속적인 발달과 함께 대형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나 필요악인 사고는 끊임없이 동반 발생되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희생자가 유형별로 일정하지 않고 당시 탑승한 승무원의 상황대처능력의 차이 즉, 비상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승무원의 리더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고별로 희생자 발생 결과가 크게 다름을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여객선과 항공기 승무원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는 평소의 안전교육 실태와 이를 통해서 형성되는 리더십의 유형과 사건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대형 사고의 사례 특히, 요즘 우리 사회를 뽕뽕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각의 운송수단별 리더십 함양을 통한 승객 안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 극동대 항공운항서비스학과 교수. jcs171@nate.com

대형 운송수단인 여객선과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첫째, 여객선과 항공기 승무원의 안전교육 실태 및 차이점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
 둘째, 여객선과 항공기 승무원의 안전교육을 통한 리더십 형성이 승객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적인 실제 실증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여객선과 항공기 승무원에게 필요한 인적 요인(human factor)에 의한 인적 오류(human error)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리더십 함양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학자들의 리더십 이론 중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과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중심으로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였고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또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관련된 주변 요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지 연구하는 인적 요인(human factor)분야에서의 인적 오류(human error)와의 상관관계를 국내 선원법, 항공법, 국내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업무교범 등과 비교, 분석하여 인적 오류(human error)를 줄이는 여객선과 항공기 승무원의 리더십 유형을 파악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거래적 리더십이란 지도자와 부하들 간에 각기 필요한 것의 거래를 통해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지도자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하들로부터 노력을 얻어내는 대가로 그들에게 외재적 보상 즉, 보수를 많이 주거나, 칭찬을 해 주거나, 승진을 시켜 준다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부하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래관계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리더십 이론이다. Bass(1985)는 거래적 리더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실행해야할 일을 정해주고 분류해 주어 이에 합당한 노력을 이행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거래적 리더십은 '규칙을 따르는' 의무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적 리더들은 변화를 촉진하기보다 조직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에는 리더의 요구에 부하가 순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교환과정이 포함되지만, 부하들의 과업목표에 대한 열의와 몰

입까지지는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박문각 시사상식편집부, 2014).

2.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변혁적 리더십 이론은 James MacGregor Burns의 저서 Leadership(1978)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Bass(B.M Bass)에 의해 새로이 정립된 리더십 이론이다. 지도자가 구성원들에게 기대되는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등 동기유발과 목표의식을 고취시켜 그들의 인격,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성과를 이끌어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변혁적 리더들은 조직과 공동체의 공동된 목표를 향하기는 과정에서 도덕적 모범을 보여줄 때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은 전통적 구조가 위기상황에 빠져 있는 사회나 조직에 새로운 가치관과 구조가 필요한 곳에 효과적이다. 개별적 배려는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지지하는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리더와 구성원간의 관계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신뢰, 즉 정서적·심리적 만족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 지식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Bass, 1985).

3. 인적 오류(human error)

인적 오류는 어떤 기계, 시스템 등에 의해 기대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반응하여 효율성, 안전성, 성과 등을 감소시키는 인간의 결정이나 행동을 말한다. 인적 오류는 사람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 수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계, 시스템 등을 다루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기계 설계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설계나 운영과 관련된 사람도 인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적 오류는 인간과 관련된 주변 요인들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부적절한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시스템의 성과, 안전성,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손영우, 2006).

Reason, J.(1990)은 인적 오류를 학습, 기억, 문제 해결, 의사 결정 등과 같은 주요한 심리학적 현상이라고 했다. 학습의 오류, 기억의 오류,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 등의 인적 오류가 잘못된 결과를 이끌기 때문에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이해하여 인간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인적 오류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 처리 과정의 각 단계에서 요인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인적 오류의 발생 변인을 확인하여 사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인적 오류는 지각, 주의, 기억, 인지, 선택, 실행 등 인간의 정보 처리 단계의 여러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예방하거나 초기에 오류를 악화시키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오류로 끝나지 않고 수행에 영향을 주는 상태로 전이되거나 다른 유형의 오류가 더해질 경우 기

능을 정지시키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인적 오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인지 과정의 한계를 고려하여 인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와 훈련이 필요하다(손영우, 2006)

III. 여객선과 항공기 승무원의 안전교육 실태와 비교 분석

여객선과 항공기 승무원은 운항 중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발휘하여 승객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 하는 등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비상상황으로부터 승객의 안전한 탈출을 도모함은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하여 승객의 생명을 구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객선(선박) 및 항공기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제반 시설 및 비상장비에 대한 사용법과 비상탈출절차 및 행동요령 습득 등 소정의 법정 안전훈련을 매 해 이수하여 승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과 리더십을 함양한다.

1. 여객선 승무원(선원)의 안전교육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65호)

- 안전교육은 기초안전교육과 상급안전교육으로 구분된다.
- 기초안전교육은 여객선과 연해구역이상을 항해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모든 선원이 5년 주기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단, 여객선 및 상선의 부원선원의 경우는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의 유효기간 내에 1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 기초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 상급안전교육은 구명정수교육, 상급소화교육, 응급처치담당자교육으로 구분되며 여객선 및 상선의 선박직원이 기초안전교육 외에 추가로 5년 주기로 이수하여야 한다.
- 외국 항에 취항하지 않는 여객선 또는 상선에 종사하는 선원이 상급안전교육의 구명정수교육, 상급소화교육,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이 면제된다.
- 상급안전교육에는 국제선과정과 국내선통합과정으로 구분되며 국제항에 취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국제선과정을, 국내선에 취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국내선통합과정을 이수하면 된다.(단, 외국적선박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제선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상급안전교육의 국내선통합과정을 이수한 자가 국제항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급안전교육 국제선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 (선원법 제2장 10조. 선장의 재선 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 (선원법 제2장 11조, 선박 위험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2. 항공기 승무원의 안전교육 (K항공사 객실승무원업무교범)

항공기 객실승무원은 대한민국 항공법에서 정하는 객실승무원의 정의(항공법 제2조 3의2)에 의해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탈출 진행 등의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하며 항공법 시행규칙 제283조에 의거 운항규정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객실승무원 업무관련 내용을 포함한 업무교범에 의거하여 자격을 취득·유지한다(운항기술기준 9.3.1.3).

안전훈련의 종류는

첫째, 신입안전훈련(Initial)으로 객실승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최초 훈련과정으로 '초기훈련' 과 '기종전문훈련' 으로 나뉘어 있다.

둘째, 정기안전훈련(Recurrent)으로 신입안전훈련을 이수한 후 승무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 12개월 기준으로 훈련적격기간 내에 이수해야 한다.

셋째, 재임용안전훈련(Re-qualification)으로 유효기간 내에 '정기안전훈련' 을 이수하지 않은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승무자격을 복원하기 위한 훈련이다.

넷째, 리더십훈련(Leadership)으로 객실승무원으로서 안전업무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한다.

기타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등 안전한 비행 환경을 승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지침, 절차, 규정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부합하는 리더십 함양을 통해 Vision 및 Mission을 적극 실현토록 한다.

3. 안전교육실태 비교분석

여객선에 종사하기 위한 승무원(선원)의 안전교육 이수 주기 5년은 승무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항공기 승무원의 안전교육 이수 주기인 12개월에 비해 현저히 길어 승객 안전에 대한 희박해지는 책임의식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의 결여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판단되어지며,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주기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승무자격을 유지하며

이를 지키기 못한 경우 승무자격을 박탈하고 유효기간 내에 ‘정기안전훈련’ 을 이수하지 않은 승무원의 승무자격 복원을 위한 ‘재임용안전훈련’ 을 별도로 두어 엄격한 안전교육 이수 주기 관리를 통해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안전의식 배양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뉴얼에 따라 동작마다 동일한 반복 훈련을 통해 머리가 아닌 몸으로 숙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객선 승무원(선원)의 경우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내에 1년 이상 승무경력 이 있는 경우 오히려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거나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초안전교육 을 면제해 주는 등 ‘최근 3년간 선원안전 재교육 현황’ 자료(출처:해양수산부) 분석에 의하면 재교육을 받은 인원은 전체 대상자 중 12%에 불과하고 2013년도 교육과정별 면제률은 기초안전 재교육 94.9%, 상급안전 재교육 84.4%에 달하고 있으며, 개인 생존기술, 방화, 소화, 기초응급처 치, 생존·구조정 원리, 조난통신, 구조법 등 승객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교육 내용 들이 면제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안전교육을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승무원들의 비상사태 발생 시의 대처능력 배양에 목적을 두는 필수불가결의 교육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승무를 위한 단순한 자격 또는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결여된 기본 인식의 바탕위에 정해진 규정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여객선과 항공기 승무원의 안전교육과정의 비교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안전업무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뚜렷한 목표의 ‘리더십훈련’ 을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두어 돌발 상황 발생 시 준비된 리더십의 발휘를 준비하는 것에 반해 여객선 승무원(선원)의 경우에는 찾아 볼 수 없다.

IV. 실증 사례를 통한 인적 요인과 리더십 유형 분석

1. 여객선 사고 사례

사례 1. 버큰헤이드호 사고

1852년 영국 해군의 수송선인 ‘버큰헤이드호’ 가 승객 630명을 태우고 남아프리카로 향해 하던 중 케이프타운 66Km 전방에서 암초에 부딪혀 침몰한 사고로 당시 배에는 60명이 탈 수 있는 구명정 3척이 전부였고 공포와 절망의 혼돈 속에서 함장이자 사령관인 세튼 대령은 전 선원에게 ‘여자와 어린이부터 태우라’ 고 명령했다. 모든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복종했고 마지막 구명정이 떠날 때까지 갑판 위에서 떠나지 않은 채 배와 명운을 같이 했다.. 함장과 병사들을 포함한 436명의 목숨이 물속에 수장되었지만 이 사건은 승객들과 영국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남

있고 배가 침몰할 위기 상황에서 지켜야 할 전통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명예가 죽음보다 상위의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하여 핏속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몸이 그대로 반응한 것이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각종 해상 사고에서 그 불문율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금언으로 남아 있다.

사례 2. 코스타 콩코르디아(Costa Concordia)호 사고

2012년 1월 13일 객실 1,500여개를 갖춘 11만4,500톤급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승객 3,216명과 선원 1,013명을 태우고 이탈리아 라치오주 치비타베키아 항구를 출발하여 항해 중 티레니아해 토스카나제도의 질리오섬 인근에서 암초와 충돌한 뒤 기울어지면서 전복되었다. 그러나 선장 프란체스코 세티노와 선원들은 승객들이 배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배를 포기하고 먼저 대피한 것으로 드러나 이탈리아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때 이탈리아 라보르노 지력의 해안경비대장 그레고리 데 팔코가 선장에게 ‘당장 배로 돌아가란 말이오 선장!’, ‘당장 배로 돌아가 몇 명이 거기 남아있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보고하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복귀 지시를 내렸으나 선장은 경비대장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배로 돌아가지 않고 살아남았지만, 이 사고로 승객 32명이 사망했고 이탈리아 검찰은 선장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2697년을 구형했다. 사고 이후 선장을 제지했던 해양경비대장은 영웅이 됐으며 이탈리아 지역신문은 ‘두 뱃사람 중 한 명은 우리를 부끄럽게 했지만, 다른 이가 이를 만회했다.’ 고 썼다.

사례 3. 세월호 사고

2014년 4월16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 구조됐고 300여명이 넘는 승객이 사망. 실종된 사고로 제주로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의 희생이 많아 전 국민에게 충격과 침통을 안겼다.

선장은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 고 지시를 하고 자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원은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망쳐 나와 승객인 척 하며 구조대원의 안내를 받아 물으로 올라왔다. ‘버큰에이드호의 전통’ 은 그들에게 없었으며 해경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 해경은 사고 직후 도망쳐 나오는 선장을 먼저 구조했으며 ‘돌아가서 피해를 확인하라’ 는 명령은 없었고 선장을 구조한 이후 현장을 통제하지도 않았다. 콩코르디아호 사고 당시 해안경비대장 같은 해경이 없었고 버큰헤이드 사고 당시 세튼 대령 같은 선장은 더더욱 없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대한민국 리더십의 명과 암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으며 선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으로 세월호 선장의 행동은 21세기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2. 항공기 사고 사례

사례 1. US Airways 항공기의 뉴욕 허드슨강 비상착수 사고

미국 동부 시각 2009년 1월1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가기 위해 뉴욕의 라파디아 공항을 떠난 승객 155명을 태운 US Airways 소속 1549편 여객기는 이륙한 지 1분 만에 2차레에 걸쳐 새 떼에 부딪히면서 엔진 2개가 모두 고장 났고 연기에 휩싸였다. 자칫하면 9.11 사태에 버금가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관제소에서는 뉴저지에 위치한 소 공항으로 여객기를 유도했지만 사고기의 기장인 체슬리 설렌버거 3세의 판단에는 그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 베테랑인 그는 과감하게 기수를 바꾸어 허드슨강을 따라 수면 위로 착수를 시도 했고 승객들은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탈출하여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으며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때까지 기장은 항공기 안에 있었다고 한다. 이륙에서 착수까지 걸린 시간은 4분에 불과했다. 최악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설렌버거 기장은 승객은 물론 조지 W 부시 대통령, 뉴욕주지사, 뉴욕시장, 항공 전문가 모두가 칭송하는 영웅이 되었다.

사례 2.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 사고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소속 보잉 777-200ER 항공기가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도중에 활주로 앞의 방파제 부분에 랜딩 기어가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이다. 당시 기내에는 291명의 승객과 1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3명의 승객이 사망했다. 사고 이후 현장 증언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항공기가 활주소에 충돌한 후 화염이 번지기까지 시간이 10~15분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승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탑승객들이 무사히 기체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한 승객은 사고기가 착륙 중 충돌한 후 기장은 확성기를 통해 모두에게 탈출하라고 외쳤으며 승무원들은 즉시 비상탈출구를 열고 비상슬라이드를 펼쳐 승객들이 대피하도록 도왔다며 승객의 탈출을 돕기 위해 위기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대처한 승무원들의 행동을 평가했고, 샌프란시스코 그렉 서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왔다' 며 '목격자들에 따르면 위기상황에서 탑승객들이 빠르게 기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어디까지 승무원들 덕분' 이라고 말했다.

타고 있던 항공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에 대해서 항공 전문가들은 최우선적으로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라고 조언한다.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역시 2차 화재가 발생했지만 안전교육 시 받은 훈련 내용대로 신속 정확하게 승객들을 대피시킨 승무원들의 위기대응능력과 지시를 따른 승객들의 질서 정연한 탈출 노력으로 피해가 적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무원들은 28개 과목에 걸쳐 총 179시간의 안전훈련 실습과 평가심사를 받고 있으며 특히 비상탈출은 1년 내에 14시간 이상 평가를 통과해야만 탑승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3. 인적 요인에 따른 리더십 유형 분석

세월호 사고 발생 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구조선이 와서 어서 나오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왔다' 또는 '선원입니까?' 하고 묻자 '아닙니다. 그냥 승객입니다' 라고 했다 한다. 머크헤이드호의 선장 처럼 배가 참몰하는 위기 상황에서 선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가치를 지키고 이에 따라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더라도, 여객선사와의 계약관계에 의한 법률상 정해진 본분을 다하는 한 개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나 보상 또는 인센티브 등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거래적 리더십의 최소한의 발휘 즉, 본질적으로 교환이나 거래가 리더와 부하 간에 발생하게 되어 부하가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리더로부터 보상을 받고 리더는 부하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Vroom, 1964)는 거래적 리더십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선장을 비롯한 모든 승무원이 매뉴얼을 몰랐으며 비상안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리더십의 발휘에 의한 구조는 커녕 무방비 상태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사고 발생 후 결과로서 드러난 승무원들의 행동은 안전교육 과정과 무관치 않음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항공법이 정한 규정에 따른 승무원 안전교육 과정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동기부여를 개인들의 특정 활동의 '과정' 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내재적 동기부여(intrinsic motivation)와, 이러한 과정 이후의 활동의 '결과' 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외재적 동기부여(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한 Deci(1980)의 구분 중에서 내재적 동기부여가 개인의 직무로부터 형성된 내적 열정과 동기부여로 직무만족도, 직무중요성, 다양성, 정체성 등 인지(cognition)와 같은 직무 자체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Amabile,1998) 보다는 비 자율적 형태로 보상과 같이 원하는 결과를 얻거나 처벌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행동을 하는 외재적 동기부여에 더 영향을 받는다 하겠다.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에 가까울 수 있겠으나 항공사 승무원의 근무 분위기 및 형태는 입사 시부터 외재적 보상에 우선해서 자아실현 또는 내재적 동기부여에 의한 자발적 참여의식이 형성된 상태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구성원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를 찾아 일하는 모습을 이루어 낸다는 점에서 변혁적 리더십이라 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했던 사고 발생 시에도 바람직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국내 항공사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는 회원국 항공당국의 조직, 법령, 종사자 자격 및 항공안전체계 등에 대한 국제 안전기준 이행 실태를 평가하는 프로그램(USOAP, Universal Safety Oversight Program)으로 1999년부터 회원국에 대한 '항공안전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수검을 실시하여 ICAO 평가단으로부터 국제기준 이행율 98.89%를 판정받아(*국가별 ICAO 안전평가 결과 : 캐나다 95.38%, 미국 91.13%, 인도네시아 54.95%,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명실공히 항공안전 세계 1위 국가로 인정받았다. 이는 과거 사고 다발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내 항공사의 획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대한항공은 1990년대 말 콰 사고, 런던 화물기 추락사고 등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미국 델타항공사로부터 항공안전 관련 컨설팅을 받아 규정과 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비행감시시스템 도입과 함께 훈련프로그램도 개선을 함은 물론, 외국인 안전 전문가를 고용해 안전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그 결과 1999년 런던 사고 직후 대한항공이 지불해야 했던 연간 항공보험료는 1억2,000만 달러까지 치솟았으나 그 후 15년 무사고 행진이 이어지면서 2014년에는 그 10분의 1 수준인 1,200만 달러까지 낮아졌다. 안전이 비용인 동시에 투자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이후 승무원간 유기적인 의사소통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항승무원 합동자원관리 훈련(Joint Crew Resource Management)¹⁾' 프로그램을 매 월 3회에서 4회로 늘렸으며 이 훈련에는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 정비사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이들을 모두 참여시키고 JCRM 훈련 대상자들이 3년에 8시간씩 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화했다. 이렇게 국내 양대 항공사에서처럼 실수가 부정적인 결과로 표출되기 이전에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인간자원, 설비, 정보 등 이용 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위기상황에서 승무원 간의 teamwork을 통해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상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협동, 업무계획 및 관리, 상황 인식, 의사결정에 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단순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낮은 수준의 거래적 리더십을 변화무쌍한 위협요인에서도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1) 효과적인 Human Factor의 현실적용의 한 예이며, 효과적인 JCRM에서는 Human Error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Human Error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높은 수준의 변혁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여객선사의 경우 우선 영세한 경영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와 같이 적절한 수준의 노력과 성과를 보이면 그에 대해 보상하는 내재적 동기부여를 위한 유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한 정신력과 책임감의 거래적 리더십의 발휘와 ‘굿 시맨십(Good Seamanship) 배양을 통한 직업윤리의 회복으로 변혁적 리더십으로의 점차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승무원관련 규정과 안전교육, 관리감독 체제를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규정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객선 및 항공기 승무원의 리더십을 통해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는 대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대원(2012). “변혁적 리더십과 정서적 신뢰가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행정논총』 50(2): 325-348.
- 백기복(2004). 『조직행동연구』 (제3판). 창민사.
- 손영우 외(2006). 『항공심리학: 인적 요인의 심리학적 이해』. 학지사.
- 신장선 외(2014). “변혁적·거래적 리더십과 직무수행성과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5): 373-379.
- 임창희(2001). 『조직행동』 (제2판). 학현사.
- (주)대한항공(2008). 『객실승무원업무교범』. 대한항공객실승무본부.
- 박문각 시사상식편집부(2014). 『최신시사상식』. 박문각.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www.molit.go.kr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www.mof.go.kr
-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 www.koreapsychology.or.kr
- 조선일보(2014). 『정동일의 사람이 경영이다』 (2014.5.18.)
<http://biz.chosun.com/svc/news>
- Bass, B. M. (1985). *Leadership and Performance*. NY: Free Press.
- E. L. Deci (1980). *The psychology of self-determination*, MA: Lexington Books.
- James Macgregor Burns (1978). *Leadership*. Harper Collins.

Reason, J. (1990). *Human Err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 M. Amabile (1998). "How to kill creativity" , *Harvard Business Review*. pp.77-87.

V. H. Vroom (1964). *Work and Motivation*. NY: Wiley.

「여객선·항공기 승무원의 리더십과 승객안전 :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박승민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총평

본 논문은 리더십 이론(특히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과 인적 오류 논의를 기반으로 승무원의 리더십이 승객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여객선과 항공기 사고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의 핵심은 여객선 사고 때 보다 항공기 사고 때 승객의 안전 확보가 더 잘 이뤄진 핵심적 이유는 여객선 승무원 보다 항공기 승무원이 받는 안전 교육이 훨씬 체계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 승무원 안전 교육의 우수성을 여객선 승무원 안전 교육에 적용하여 여객선 승무원의 리더십을 배양함에 따라 여객선 승객의 안전 확보가 향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토론자가 봤을 때, 저자의 집필 의도는 세월호 사건으로 공공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한국 상황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아래 사항이 잘 반영된다면 한국 사회의 공공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논문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제안 사항

○ 논문 전체 구조와 관련하여,

논문의 제목에 명확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저지는 본 논문에서 여객선과 항공기 승무원의 리더십이 승객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월호 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

다. 그런데 논문의 실제 내용은 세월호 사고를 포함한 세 가지 여객선 사고 사례와 두 가지 항공기 사고 사례를 통해 항공기 사고에서의 승무원의 역할이 여객선 사고에서의 승무원의 역할 보다 잘 수행되어 상대적으로 사고를 잘 수습했으며 그러한 비교 우위는 항공기 사고 예방 교육이 여객선 사고 예방 교육보다 월등히 체계적으로 잘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승무원의 리더십이 승객 안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여객선 사고와 항공기 사고 사례 비교를 통해 한 것이므로 부제를 삭제하거나 논문의 결론에서 항공기 사고 예방의 교훈을 여객선 사고 예방 교육훈련에도 적용하지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할 것을 권합니다.

○ 이론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론적 배경 부분의 열개를 보다 짜임새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논문에서의 이론적 배경은 해당 이론 각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본문의 구체적 내용과의 연결점을 중심으로 가능하다면 비판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론적 배경 부분은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여객선과 항공기 사고 사례와 조응은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논의를 잘 연결시키고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혹시 기존의 이론들로써 저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사례를 분석하는데 한계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점에서 기존 이론이 보완 되어야 하며 그래서 저자만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고민해 본다면 지금과 다른 시각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방법론과 관련하여,

저자가 연구 방법론 부분에서 분명하게 밝혔듯이 본 논문은 리더십에 관한 두 이론(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공통 주제 하 다양한 이론적 시각 중에서 특정 시각을 차용하는 것은 연구자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승무원의 리더십이 승객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저자가 차용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 다른 리더십 이론 보다 적절한 분석틀로서 어떤 점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지 밝혀주면 글의 논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론의 구체적 분석 내용과 관련하여,

저자는 여객선과 항공기 안전 교육의 실태 비교를 주로 교육 기간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외의 항목을 추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능한 항목 대 항목의 1차적 비교를 넘어서 여객선과 항공기가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왜 안전 관련 법 규정이 달리 설정 되었을까? 등과 같은 질문을 대입해 보면 비교 분석이 지금 보다 다차원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예를 들면, 여객선과 항공기는 모두 운송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운행 장소, 비용, 운영 기업의 기본적 규모 차 등 각 수단의 안전 교육 규정이 달라 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요소들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각 관련법과 규정이 제정되는 과정 간 발생한 역동성을 함께 비교할 수 있다면 저자가 결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여객선에 대한 부실한 안전 규정 대 상대적으로 잘 조직된 항공기 안전 관련 규정 차이 기저의 역동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모순 : 재정개편과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권진욱*

1. 지방자치 20년의 사회복지 (서론)

가. 공적인 사회복지의 비약적인 발전

- 1) 사회복지정책은 복합적,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 2) 사회복지활동은 공공부문, 법정민간, 자발적 민간으로 활동을 구분해 볼 수 있음.
※ OECD 재정분류체계상 복지지출은 공공(public)지출, 법정민간(mandatory private)지출, 자발적 민간지출(voluntary private)의 합으로 구성.¹⁾
- 3) 공공부문은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언급하는 자유주의-조합주의-사민주의를 막론하고 (Esping-Anderson), 복지정책을 펴는 모든 국가에서 가장 압도적인 부문. 법정민간지출도 상당부문 공적 재원이 투여되어 있음.
- 4) 재원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 인력 면에서도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수²⁾

구분	시설수(개소)			생활 인원(명)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합계	3,770	4,983	5,340	142,254	165,672	175,910
아동복지	280	280	280	17,586	17,119	16,523
노인복지	2,992	4,150	4,469	79,537	108,129	113,451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1)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노후소득보장체계, p. 205.

2)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보시스템(<http://www.w4c.go.kr/intro/introFaciCurrent.do>)

장애인복지	397	452	490	23,243	24,395	25,345
정신질환자요양	59	59	59	12,111	11,613	11,414
부랑인	37	37	37	9,266	8,958	8,742
결핵 및 한센인	5	5	5	511	458	435

구분	종사자 수(명)			종사자 1인당 시설 생활 인원수(명)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합계	62,183	77,640	85,023	2.3	2.1	2.0
아동복지	5,278	5,328	5,369	3.3	3.2	3.1
노인복지	42,261	56,844	63,439	1.9	1.8	1.8
장애인복지	11,869	12,689	13,367	2.0	1.9	1.9
정신질환자요양	1,916	1,913	1,942	6.5	6.1	5.9
부랑인	759	774	804	12.2	11.6	10.9
결핵 및 한센인	100	97	102	5.1	4.7	4.3

5) 따라서 여기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특히 재정과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함.

나. 지방자치 시대의 복지서비스의 병목현상

- 1) 산업화 시기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서, 후기산업화 시대에는 사회복지재정 수요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별 패턴.
- 2)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커짐. 단체장, 의원 등 선출직의 주된 공약도 SOC 확충에서 복지서비스 확대로 주된 흐름이 변경하고 있음.
- 3) 그러나 최근의 시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종단면 분석 결과 시간이 갈수록, 횡단면 분석 결과 젊은 20~30대에서 중장년층보다 하락하고 있음. 이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기대치의 하향추세를 보여줌.
- 4) 그런데, 이는 객관적인 요인(서비스 질의 하락)보다는 주관적인 요인(기대치 대비 만족도의 하락)의 요인이 크다고 판단됨. 왜냐하면 복지서비스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양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그 특성상 한번 추가된 서비스를 다시 삭감하기는 어려우므로 복지서비스는 지속적인 점증성을 갖고 있음.
- 5) 즉 지방화,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시민의 참여감시활동 증가, 민간전문가의 출현, 고객주의 행정이념, 공공정보 공개 등으로 주민복지서비스에 대한 눈높이가 크게 올라갔지만, 체감 복지서비스는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
- 6) 주민밀착형 복지행정은 양적, 질적으로 아직은 구호에 불과함.

2. 사회복지정책 이론 (본론 I)

가. 복지정책의 명과 암

- 1) 복지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엇갈림. 다수의 거시경제분석은 사회복지예산이 일정수준 이상에서는 고용증가나 경제성장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있음. 이는 사회보장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노동의욕이 감퇴하고 무임승차자가 늘어서 경제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 통념과 맞아떨어지는 대목.
- 2) 반면 노동이 탈상품화될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로 간주하는 입장(E. Anderson)에서는 복지서비스가 노동시장에서 임금으로 계량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복지혜택이 차등적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품격있는 사회적 투자, 인간존중의 이념이 내재되어 있음.
- 3) 이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와 연결망이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상쇄하고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한다는 논의(R. Putnam)와도 맞닿아 있음. 그리고 공공부문의 사회복지협업체 활동이 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음(2009년 이주현의 논문). 중요한 것은 공공복지가 기업복지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라, 민간부문이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분야를 지탱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유지기능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양(+)의 경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임.
- 4) 앵글로색슨식 시장주의적 복지와 북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는 사회복지를 보는 시각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시혜이냐,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기초적인 시민권의 보장 이냐로 전혀 다름.

나. 거버넌스론

- 1) 민주화, 지방화,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책결정에서도 공공부문이 독주하는 관료제에서 탈피, 거버넌스의 중요성 증대.
- 2) 전통적인 거버넌스는 “인간사에서 일체의 사회조정기제” 를 뜻함. “정부에 의한 통치 (Government)” 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 3) 협의의 거버넌스, 즉 뉴거버넌스는 사회적 연결망(network)와 유대관계(partnership)를 통한 공공문제의 공동해결을 추구. 협력(collaboration)과 조정(coordination)이 핵심적인 작동원

리.

- ※ 신공공관리론(NPM)은 시장과의 국가의 역할분담, 시장중심적(또는 시장우위적) 거버넌스로 별도로 구분. (뉴거버넌스는 ‘주민(주체, 대상), 공동체(공간), 참여확대(목적)’,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주체, 대상), 시장(공간), 경영혁신(활동)’ →) 표로 구성.
- 4)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기업), 시민사회(주민, NGO, 전문가모임 등)의 공동체 운영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 5)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기반. 위계조직(hierarchy)이 단기적 효율성(efficiency)을 추구한다면, 거버넌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 효과성(effectiveness)을 추구.
 - 6) 인간존중의 사회복지 이념도 주민참여의 거버넌스의 이상과 일맥상통. 복지서비스도 결국 담당자나 종사자를 통해 전달됨. 복지행정서비스도 복잡한 행정사무계통도를 통한 일률적인 움직임보다는 시민과 담당자들이 자율호혜적인 사회연결망의 무한확대로 펼쳐지기를 기대.

3. 사회복지 재정분석 (본론 II)

가. 선별적 복지

- 1) 복지프로그램의 도입은 재정규모를 염두에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한번 증가한 복지지출은 다시 감축이 어려움.
- 2) 복지재원이라는 한정된 가치의 배분과 관련한 재정공급의 측면
- 3) 전문가 국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복지재정규모를 국제비교분석하니 향후 10년 이내 추구해야하는 복지국가 유형은 영미형의 선택적 복지라는 실증연구 결과도 많이 있다. (최순영, 한국노동연구원 사회복지인식조사 보고서 분석, 2014)³⁾
- 4) 영, 미뿐만 아니라 현재의 한국, 일본도 이 유형에 가까움. 가장 필요한 대상에 많은 혜택 집중 부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원 배분 가능.
- 5) 정확한 적용기준의 대입산출이 사실상 어려움. 선별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 소요. 기여정도에 따라 하브로 협소해짐. 송파구 세모녀 사건.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선별하지 못함.

나. 보편적 복지

- 3) 그러나 이 연구는 10년이라는 중기예측이라는 점, 실태나 통계치가 아닌 인식조사가 갖는 한계,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등에서 예측성 사회조사로서의 한계점이 있다.

- 1)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 부자도 같은 혜택을 받음(예.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비슷). 모든 계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 심지어 공적 부조의 1차적 수혜자인 취약계층, 기초생활자도 선별적 복지보다 기대 혜택수준이 높아짐.
- 3) 이로 인해서 국가의 엄청난 사회복지재정부담이 생기고 시민에게도 조세나 준조세의 상향, 즉 증세가 요구됨. 한국도 도입시 조세저항 우려.
- 4) 강력한 사회연대의식에 기반한 사회적 협약 필요.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국가위기,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의 충격이 도래함에 따라 극적으로 도입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다. 한국의 현실

- 1) 선별적 복지 요소(예. 기초생활수급자제도)를 기본으로 보편적 복지의 요소(의료보험제도, 노령연금)가 확충되고 있는 절충적 형태의 복지.
- 2)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정책은 (사회주도형과 달리) 후진국에서 정부주도의 동원형에 가까움 (Roth 등). 권위주의 시절의 의료보험제도 자의적 도입 등이 좋은 예. 오늘날에는 사회복지의 정책이슈가 관련한 정책담론과 시민단체가 출현할만큼 점차 사회주도형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음.
- 3) 선별적 복지론자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담론은 '복지포퓰리즘' 서민의 표를 노린 특정정치세력의 무책임한 퍼주기라는 것. 그러나 이는 정치적 구호일뿐 여야, 정당을 막론한 일반적인 현상. 실제로는 선출직의 공통적인 선거구호가 지역복지의 확대이지만 실제로는 선거후 재원마련 곤란으로 호지부지되는 것이 익숙한 패턴. 이점을 매니페스트도 집중비판.
- 4) 보편적 복지론자의 선별적 복지에 대한 비판담론은 '서민증세' 실제로는 재원 건전성은 뒷전. 주민편익에 따른 서비스우선순위도 선거공약과 같은 정치적 담론에 의해 인위적으로 배열.
- 5) 사회복지 정책은 지역차원에서는 무책임성의 남발이지만, 이의 집합인 국가재정의 측면에서는 결국 '너 좋고 나 좋기' 게임이 반복됨으로써 결국 나눠먹기(log rolling)와 지역 이권챙기기(pork barrel)가 횡행하기 쉬운 영역.
- 6) 그러나 지역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으로부터의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음. 민주주의 사회에서 관료나 정책담당자는 주민의 수요를 투표, 선거, 주민소환, 정보공개, 예산참여, 공청회 등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받고 있으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정책에 반영하려 함.

- 7) 납세자이자 주민인 시민은 공공부문에 최소한 자신이 지불한 세금 이상의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며 사회권의식의 확대로 인해 자신이 정부를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기댈 수 있는 최종적인 의지처(last resort)로 간주하는 경향. 공공행정서비스의 특성상 체감도는 일반적인 민간재 상품이나 서비스에 비하여 낮은 편.
- 8) 권위주의나 전체주의에서는 국가적 힘을 동원하여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강제적 방식이었으나 민주사회의 정부는 주민의 복지수요는 정당한 요구로서 이에 응답할 책무를 가짐. 그것이 특히 자율적이고 실제적인 필요(needs)를 더 잘 반영하는 것이기에 주민 요구의 합리성이 높음.
- 9)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정부는 복지서비스의 제고를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주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는 한참 뒤떨어지는 '지역복지의 모순'에 빠짐.

라.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비호환성

- 1) 지방자치의 심화, 지방분권화로 인해서 지방행정당국이나 지역사회가 주민을 보다 세심하게 돌봄으로써 주민복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으나 위에서 살펴본 대로 재정적 무책임성은 현실적인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
- 2) 최근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됨. 남유럽 재정위기는 사회정책의 실패이며 정책이념의 빈곤과 재정적 무책임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반면, 북유럽과 같은 수준의 조세부담에는 반대함. 결국 앞서 말한대로 실제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은 고려하지 않은채, 나눠먹기 게임을 한 결과,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에 빠지게 된 것임. 노사정(계급)간의 대타협 협약이나 국민 전반의 복지정책에 대한 상호책무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국가부담능력 이상의 복지패키지를 실행했기 때문에 만성적 재정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임.
- 3) 그러나 출산율과 자녀수의 감소, 고령화사회의 도래, 새터민·이주민 유입에 따른 다문화사회화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시스템의 개편은 필수적임. 보다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복지 수요의 면에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지만 잠재노동력 감소로 인해 재원의 합리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절충적 복지도 반드시 필요함.

마. 지역복지의 선결요건

- 1) 각개의 지역은 좋은 지역정책의 실험장(test bed)이 될 수 있다. 잘된다면 타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제는 중앙집권제보다 큰 매력을 갖고 있다. 지역주민수요

에 잘 부응하면서도 재정적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면 높이 평가하며 다른 지역에도 도입을 적극 장려할만도 하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는 자율성이 많지 않다. 중앙정부의 지방의 자결, 자기경영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행정부(구 행정자치부)의 경우 고유 사무를 지방자치 사무로 잃을 경우 부서의 조직과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권때 삼위일체 개혁을 했다. 정치권이 모처럼 추진력을 갖고 중앙관료의 힘을 약화시키고 지방에 힘을 몰아주고 재원도 함께 이전한 것이다. 일본은 점차 지방에 고유사무를 이전하고 국고보조금 대신 지방세라는 자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도 시설복지보다는 개호보험 등 지역복지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효과적 운용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삼위일체개혁은 결국 소위 '발에 의한 투표(voting by foot)' 라는 지자체간의 경쟁을 제시한 티부(C. Tiebout)모델의 실현도 염두에 둔 것이다.
- 3) 대표적인 서구의 중앙집권형 국가이자 우리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좋은 참고사례로 꼽히는 프랑스의 경우도 미테랑정권의 지방자치법 도입 이후 중앙집권에서 지역분권으로 물꼬를 트게 되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책임과 권한의 동시이양이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무이양에 따라 재원도 이전되었고 중앙정부는 중간행정절차 지원과 사후적법성을 확인하는 지방자치의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4) 재정건전성의 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한다. 선거공약을 통해서 단체장이 펼치는 아이디어성 복지사업은 좋은 것도 많지만 검토없이 베풀거나 급조된 것도 많다. 그럼에도 실제로 4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분석이나 2년 단위의 지방투융자심사제도가 존재하지만 덩치가 큰 사업만을 대상으로 사전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등의 건물신개축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필터링하는 기제가 많지 않다.

4.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본론 III)

가. 이상적 모델 VS 위계적 모델 (그림 별첨)

- 1) 사회복지 협의회 모델(일반적인 중앙-지방 연계의 위계모델)
- 2) 이상적 모델

나. 정부의 사회정책의 전환이 필요.

- 1) ‘우리 동네’의 선호를 개별적 선호를 가장 잘 알관 수 있는 곳은 가까운 기초 하부행정 기관이다. 현재 복지예산은 기초지자체 사업예산의 8할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하부단위에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 사무와 재원이 이전되는 보다 심화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서비스전달체계도 지역하부단위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단순화, 실용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지역의 자기결정이나 경영)에 대한 신념을 갖는 동시에, 지역역량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책의지의 실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와 복지제도는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 2) 따라서 국정담당자의 인식의 전환, 아니 심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시혜나 사회구성원간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누구나 최저기준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한다는 인간존중의 의식, 역지사지의 사고가 있어야 한다. 누구나 노인, 장애인일 수 있으며,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동, 사회활동도 필요하고 동등하다는 성(gender)적 인식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의 높은 안목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다. 담당자의 어려움

- 1) 이른바 ‘갈때기 현상’ ‘업무몰빵 현상’이라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수령현상이 심각하다. 업무특성상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위로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자체에서 사실상의 모든 주민서비스를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몰아주고 있다. 이를 좀더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산업무 등을 행정직 등에게 분담시킬 필요가 있다.
- 2) 또한 전산업무 등 잡무 너무 많아 행정력 소모가 심하다. 사회복지 공무원,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현장활동뿐만 아니라 전산입력, 공문처리, 민원처리, 행정기관간 연계 등 산적한 업무가 많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외근직 근로자에 대한 특수한 업무시간 인정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판국이다. 육체적 노동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여러 가지 근무여건과 대우를 향상시킴으로써 사회복지의 특성상 중요한 인적 지속성을 유지시키도록 해야한다. 특별수당 상향, 정서적 힐링 제도 운영, 상급직 정원수 증가 등 최근 서울시의 개선책 제시 참조.⁴⁾
- 2) 모든 개인성과평가는 개인의 성과의 합이 기관의 성과, 더 나아가 사회전체에 대한 행정성

4) 참고자료: 서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개선방안 요약(2013.4.)

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에서 비롯됨.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담당자들도 기관의 미션과 개인의 실적에 따른 성과평가체계에 따라 승진, 급여, 성과급 등이 부여됨.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개인과 조직(기관 차원+부서나 팀 차원)으로 결정. 복지서비스는 단순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제도적으로 사람을 보살피거나 돕는 일을 하는 사람. 엄청난 업무부담을 딛고 커다란 사명감으로 딛고 일하는 이들을 남들이 기피하는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단순한 성과체계로 평가하는데 행정력을 소모하는 것은 불합리할뿐만 아니라 부정의한 일. 성과평가를 대폭 완화, 대우의 상향화 시키고, 서비스 전달자인 이들의 수행 능력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 3) 사회복지직이 일반행정직에 비해 적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직의 수 증원이다.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5. 결론

가. 미래를 향해

재정면에서 절충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실적 한시적 접근이라고 하겠다. 재정이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사회정책은 복합적인 패키지이다. 한국의 경제시스템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가사회의 변화와 위기에 대한 개인개별 대응의 한계와 공동대응, 인간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등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편주의적 접근방식은 가져가야 한다.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과 같은 사회적 연대 협약은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힘의 교착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급간 오랜 투쟁과 대화의 결과물이다. 또한 노동과 연계시킨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개념과 같은 생산적 복지모델도 참고할만하다. 이 글의 본질적 주장은 어떤 정치경제경제시스템인가에 대한 모델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사회복지의 근간에는 신뢰와 사회적 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이글의 한계

정책의 진단과 대안 위주로 쓰다보니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인 자료 제시가 취약한 면이 있다. 재정면에서 절충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의 단계마다

참여하는 민주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를 집합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연구에 인용된 통계나 자료는 여러 가지 다른 연구와 기사에서 취합한 것이다.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대단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집계체계가 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논지에는 큰 이상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모순」에 대한 토론

박보영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총평

이 논문은 지방복지행정을 다룬 보기 드문 논문입니다. 기존 연구의 경우 대개가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행정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갖는 의의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정책 중 사회보험의 현금급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복지프로그램들이 지역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토론자가 보기에) 세 가지 점에서 커다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논문의 요지와 논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논문이 던지는 함의와 쟁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둘째, 어떤 이론적 틀이나 뚜렷한 관점 없이 현실 진단과 대안 제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론자의 생각엔 이럴 경우 논문은 칼럼과 차별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셋째, (초고임을 감안하더라도) 글의 세부적·기술적 완성도를 상당한 정도 높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안 사항

○ 논문 전체 논지 및 구조와 관련하여

- 지역복지행정의 현주소를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선 한국 지역사회복지정책 저발전의 구조적 요인을 짚었어야 함. 요컨대 군사정권 하에서 질식됐다 1990년대 들어 부활된 지방자치제 하에서 왜 지역사회복지정책이 저발전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어야 함.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한국적 현실에서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실시란 곧 중앙정

부의 교부금과 직결됨.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지역복지행정의 현대화, 즉 효율성·효과성 제고는 결국 중앙정부의 ‘증세의 정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 이 논문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음.

- 논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으면 함 : 서론(문제제기) → 이론적 논의/배경 → 한국 지역복지행정 진단(재정 문제 + 전달체계 문제) → 결론(함의 제시 및 저자의 논점 재강조)

○ 이론적 배경과 관련하여

- 저자가 이 논문의 관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거버넌스’ (governance, 공치/협치) 논의인가? 이 점이 분명치 않음. 그리고 거버넌스 논의에 따른 재정 분석이나 전달체계 분석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본문의 구체적 분석 내용과 관련하여

- 본문 p.23 : 공적 복지의 비약적 발전이란 표현에 동의하기 힘들. 특히 한국의 경우엔 공적 지출의 자연증가분이 클 뿐 아니라 OECD 회원국 중 복지지출의 비중이 최하위권임.

- 본문 p.24 : ‘복지서비스의 병목현상’이란 표현보다는 ‘복지서비스 발전의 지체’란 표현이 더 적확하다고 판단됨.

- 본문 p.25 : E. Anderson → Gøsta Esping-Andersen 또는 G. Esping-Andersen

- 본문 pp.26-27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각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본문 p.27 : Roth? 어떤 Roth를 말하는지 알 수 없음.

- 본문 p.28 :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정치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비호환성’이란 제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음.

- 본문 p.29 :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이상적 모델 vs 위계적 모델)에서 ‘그림 별첨’이라고 했으나 그림 첨부되지 않았음.

- 본문 p.30 : 담당자의 어려움을 언급하기에 앞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구조적 요인을 짚어줘야 함. 지자체는 대부분의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이바타 역할, 즉 창구 역할에 그침. 서울시 같은 곳을 제외하곤 대부분 예산도, 권한도 거의 없는 상태임.

- 본문 p.31 : 재정적 면에서 절충적 개념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저자의 주장과 달리 그것이 뚜렷이 드러났다고 보여지지 않음.

자유발표

▣ 자유민주주의의 역설적 성격에 관한 고찰

/ 조한상(청주대)

자유민주주의의 역설적 성격에 관한 고찰

조한상*

I. 시작하며 : 왜곡된 논쟁의 이면

몇 해 전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소 요란스러운 논쟁이 있었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명시하면서부터 촉발된 논쟁이었다. 이러한 집필기준을 옹호하는 측의 주장의 핵심은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면 이른바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 되므로, 그것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¹⁾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민주주의라는 말에 ‘자유’ 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북한의 체제와 명확히 구별되는 민주주의가 된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자유주의를 반공주의, 더 정확하게 말해서 반북주의와 동의어로 여기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관행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²⁾ 아무리 독재와 인권탄압이 횡행하고 있더라도, 소련·중공·북한 등의 현실 사회주의 진영 밖에 있으므로 ‘자유진영’ 이라고 지칭했다. 우리는 이러한 수사의 억지스러움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 즉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저 민주주의라고 지칭하지는 주장도 궁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속사정이 무엇이든, 자유의 소중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소중함을 반박하는 모양새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을 비롯하여 총 4차례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근본적 결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간단히 무시할 수는

* 청주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hanszo95@gmail.com

1) 국민일보 2011.9.21.자(검색일 2014.10.10.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376613&cp=nv>).

2) 김동춘, 대한민국 잔혹사, 한겨레 출판, 2013, 49면 참조.

없는 일이다.

우리사회를 들불처럼 휩쓸고 간 자유민주주의 논쟁은 대북 문제와 관련된 이른바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사이의 왜곡된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쟁이 지적으로 생산적인 성과를 남겼을 리 만무하며, 개정된 국사교과서만 남겨 놓고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사그라졌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논쟁을 하는 동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과 토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며 또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과연 조화될 수 있는 것이며 또 조화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치철학 및 헌법철학적으로 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초반 한국사회에 엄습해 온 위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단초가 될 것이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논쟁 이면에 은폐되어 있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논쟁을 해야 할 때이다. 벨기에 출신이며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류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Chantal Mouffe)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고민의 좋은 후견인이 될 것이다.

II. 자유민주주의의 모순(?)

1. 자유민주주의 : 자유주의 + 민주주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어이다.³⁾ 하지만 양자의 논리적 결합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으며, 양자는 지극히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주류적 사고방식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⁴⁾이라고 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역시 여기에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존재하지 않는다.

3) 무페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자유주의(법치, 권력의 분립 그리고 인권 등)와 인민주권의 민주주의적 전통이라고 하는 상이한 두 전통의 표출결과 만들어진 인간의 공전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특정한 형태를 의미한다고 말한다(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인간사랑, 2006, 37면 이하 참조; 원문은 The Democratic Paradox, VERSO, 2000이며, 이하에서는 번역본을 인용함).

4)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

하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어울리기 어려운 개념들 사이의 조합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일부 학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결혼생활에 비유한 바 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조어는 두 구성 원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혼을 연상시키지만, 이 동맹에는 실제 결혼 생활처럼 갈등이 내재한다고 하였다.⁵⁾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한다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개진되어 오고 있다. 일부 보수적 자유주의자의 경우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에 대하여 주장하기도 한다.⁶⁾ 하지만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밝히고 자유주의가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의견이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개진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하의 고찰 역시 후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자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의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이해라고 하겠다.⁷⁾ 앞서 언급했던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논쟁 역시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체제의 차이를 자유주의라는 말로 강조하는 사고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이론사를 보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결합은 그야말로 일부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가 낳는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사회 전반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⁸⁾ 따라서 양자의 밀접한 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하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아닌 정치적 자유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자유주의의 인간관과 민주주의의 인간관의 충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가장 극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칼 슈미트(Carl Schmitt)이다. 나치에 부역하고 그로 인해 불명예와 치욕 속에서 말년을 보낸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문제적 정치철학자'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각종 학문 분야의 대가들이 슈미트의 제자이거나 제자를 자처할 정도로, 그는 20세기 이후 학문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⁹⁾ 민주

5) Arblaster의 의견이다(최장집·박찬표·박상훈,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2007, 206쪽 이하 참조).

6) 예컨대 197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내지 신우파는 권위를 강조하고 민주주의의 제한을 요구하였다(A. Heywood[조현수 역], 정치학, 성균관대 출판부, 2009, 106면, 164면 참조).

7) 현재 2001. 9. 27. 2000헌마238, 판례집 13-2, 383, 402.

8) 예컨대 J. Stiglitz(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 열린 책들, 2013, 101면 참조.

9) E. Forsthoff, E-W. Böckenförde와 같은 공법학자 뿐만 아니라, R. Koselleck와 같은 역사학자, N. Sombart와 같은 문화사회학자들도 그의 제자이거나 제자로 간주되고 있을 정도로 그의 학문적 비중은 높다고 평가된다(C. Schmitt[나종석 역],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길, 2012, 201면 참조).

주의 이론에 있어서도 그의 주장은 독창적이고 탁월하며, 그의 이론을 우회해서는 민주주의에 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다.

슈미트는 민주주의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시, 즉 이른바 동일성 이론에 기초하여 이해한다. 사실 이러한 동일성 이론은 민주주의가 아닌 포폴리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¹⁰⁾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 다시 말해 인민의 지배라는 모티브를 완전히 삭제한 민주주의는 개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이 동일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에 커다란 편차가 있을 뿐이다.

만약 인민이 지배를 한다면 누가 인민에 속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민에 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폐쇄의 순간이 함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 인민은 지배에 있어서 평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민주주의가 된다. 여기에서 평등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평등이 아니며, 불평등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평등이다. 그래야만 평등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정리하자면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인민의 평등이라는 말은 인민에 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현실적 차별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슈미트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개인을 추상적인 인류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사실 자유주의에 있어서 개인은 이른바 무연고적 자아로 상정된다는 것은 비교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즉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이 국가나 정부형태에 무관하게 천부의 자유를 향유한다는 생각이 자유주의의 사유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 공동체에 속하든지 간에, 동일하고 무차별적인 존재로 인식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인간관과는 모순된다. 슈미트는 도덕적 담론으로서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동질성에 기초한 정체성을 창조할 것을 목표로 삼는 민주주의적 이상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대립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¹¹⁾

3. 정치 없는 정치철학

1) 의회제도 비판

개방성과 토론을 통한 공적 토론을 통해 정의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¹²⁾ “진리는 의견들 간의 영원한 경쟁의 단순 함수”

10)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71면 이하 참조.

11) 이상에 대하여는 C. Schmitt(trans. by E. Kennedy), *The Crisis of Parliamentary Democracy*, MIT Press, 1985, pp. 12-13.

12) P. Woodruff(이윤철 역), 최초의 민주주의, 돌베개, 2012, 293면 참조.

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유독 자유주의와 친화성을 갖는데, 자유주의는 모든 선협적인 개인들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에 토대를 두기 때문이다. 슈미트는 의회제도가 이러한 자유주의의 이상에 지적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본래 중세 봉건제도에서 출발한 의회제가 오늘날 민주주의와 결합하게 된 것은 역사적 우연이라고 평가된다.¹³⁾ 슈미트는 의회제도와 민주주의는 완전히 이질적인 정치적 원칙들이며, 절대 군주제와 프롤레타리아적 민주주의 사이에서 가까스로 설립된 타협의 결과라고 평가절하 한다. 그 유래가 무엇이건 오늘날 이러한 의회제도의 이상은 그야말로 공허하고 진부한 희망사항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장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과거와는 다른 오늘날의 정치 현실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치적인 것의 기준을 적과 동지의 구별에서 찾은 것은 슈미트의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갈등과 적대, 권력관계는 민주주의를 비롯한 모든 정치적 공동체의 본질적 현상이다.¹⁴⁾ 아무리 근대 헌법이 수립되고 민주주의가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혈 투쟁이 투표나 선거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 그 본성은 결코 불식될 수 없다.

하지만 의회제도는 정치적인 것의 본질과는 부합하기 어려운 사고에 토대를 둔 것이다. 그에게 자유주의 그리고 의회제도는 이러한 정치적인 것을 도덕의 제약 아래에서의 사적 이익들 간의 협상이라는 합리적 과정으로 환원시켜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원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정치의 도덕적 추론이 아니며 그 자체가 합리성의 한계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¹⁵⁾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자유주의와 정체로서의 민주주의는 충돌하게 된다.¹⁶⁾

2) 심의 민주주의와 그것의 결합들

오늘날 가장 진화된 자유주의 이론은 롤즈(John Rawls)의 그것이라고 하겠으며, 이제 자유주의, 나아가 정치철학을 논함에 있어서 그의 주장을 간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 그는 특히 민주주의를 순전히 도구화하는 슈페터 식의 집약이론¹⁷⁾을 극복함과 동시에 자유주의와 민

13) 잉글랜드에서 17세기 후반 의회가 군주로부터 권력을 거머쥔 이후에도 대의정체는 꽃을 피웠을 지언정 민주주의는 탄압을 받았다(R. Osborn[최완규 역],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시공사, 2012, 85면).

14)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81면; 국가란 폭력의 독점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지역적 집단이라는 M. Weber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 사이의 폭력적 투쟁이 정치의 피할 수 없는 본성임을 부인할 수 없다(萱野稔人[김은주 역], 국가란 무엇인가, 산문, 2010, 12면 이하 참조).

15) C. Mouffe(이보경 역),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2007, 11면, 183면; 원문은 The Return of the Political, VERSO, 2005이며, 이하에서는 번역본으로 인용함.

16) 이상에 대하여는 C. Schmitt, Verfassungslehre, Duncker&humblot, 1928(Neudruck 1954). S. 353ff.

17) J. Schumpeter(변상진 역),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한길사, 2011, 512면 이하 참조.

주주의의 논리적 결합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¹⁸⁾

롤즈는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본질적인 원칙의 차원에서 분열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사람들은 합헌적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들의 도덕적 힘을 실행하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충분히 협동하는 공정한 약정을 준수하는 지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또 실제로 전적으로 협동할 정도로 합리적이라고 전제된다.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여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배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며, 여기에서 사람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실용적인 이성의 원칙을 통해 중첩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정의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없으며 정립된 절차 자체가 산출된 결과의 공정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된다. 그가 제시하는 절차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각각의 모든 사람은 타인의 동일한 자유와 양립가능한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 전체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②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 이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부여한다. ㉡ 이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에서 만인에게 개방된 직책 및 지위와 구별된다.¹⁹⁾

한편 하버마스와 그의 추종자들 역시 유사한 맥락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어떠한 정체의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정체의 제도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익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 집합적 심의의 과정으로부터 결과하도록 만들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들은 담론 모델의 절차를 제시하는데 그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심의에 대한 참여는 평등과 대칭이라고 하는 규범에 따른다. ② 모든 사람은 대화의 주어진 주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사람들은 논의절차의 규칙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적용되고 실행되는 방식에 관해서 성찰적인 주장을 시작할 수 있다. 중립성과 평등, 공개성과 강제성의 부재, 그리고 전원합의라는 절차상의 가치들이 선언되는데, 이것이 유명한 이상적 담화상황이다.²⁰⁾

롤즈와 하버마스의 이론들은 이른바 심의민주주의 이론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들은 충분한 심의적 절차를 통해 개인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평등과 인민의 참여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여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정당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신념을 공유한다.²¹⁾ 다시 말해 그들은 정치적 영역에서의 완전한 합의를 추구하려 한다. 물론 하버마스 학파는 이상적 담화를 실현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합의가 왜곡되거나 여의치 않은 장애 상황이 발생할

18)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130면.

19) J. Rawls(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105면 이하 참조;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45면 이하 참조.

20) S. Benhabib, Deliberative Rationality and Models of Democratic Legitimacy, Constellations, 1, 1. April 1994, p. 30.

21)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23면, 139면.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장애는 경험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대답이다.²²⁾ 즉 이론적으로 완전한 합의를 ‘지향’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을 달기 어렵다.

하지만 모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공공의 심의는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긋는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것’의 본질과 모순된다는 것이 무페의 주장이다.²³⁾ 아무리 민주주의여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에서 합의는 패권의 표현이고 권력관계의 결정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것과 정당하지 않은 것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는 항상 정치적인 것이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완전히 합의되지 못하고 영원히 논쟁적인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칼 슈미트의 의회제도 비판과 유사한 맥락이다.

4. 다원주의로부터의 이탈

무페는 무제한적 토론과 완전한 합의를 강조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의 의미를 간과한 자유주의 이론은 스스로 지향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산출해 낸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들은 개인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으로 전제하는데, 만약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으로 판단되면 심의의 절차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²⁴⁾ 또 합의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항들, 예컨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철학적인 문제는 정치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며 사적 영역으로 떠 넘겨진다.²⁵⁾ 특히 후자의 배제는 매우 심각한 것인데, 사실 개인의 철학적 세계관과 연결되지 않은 정치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배제 전략은 여러 문제점을 양산한다. 인적 배제는 공동체 구성원의 평등을 핵심으로 삼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 사항적 배제는 민주주의 정치를 형해화한다. 후자의 점과 관련하여 슈미트는 인상적인 예언을 하였다. 자유주의 사상은 국가와 정치를 회피하거나 무시하고 대신에 윤리와 경제라고 하는 두 개의 이질적인 영역의 항상 반복되는 극으로 들어선다는 것이다.²⁶⁾ 이것은 정치가 무력화되고 있는 우리 현실이 보여주는 그대로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는 갈등들은 정치가 아닌 예상치 못한 다른 경로를 통해 돌출될 위험이 상존한다.²⁷⁾

22)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79면.

23)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55면; 비트겐슈타인은 “우리는 마찰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뜻에서는 그 조건이 이상적인, 바로 그 때문에 또한 걸어 갈 수도 없는 빙판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걸어가고자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마찰이 필요하다. 거친 대지로 되돌아가자!” 라고 하였다(L. Wittgenstein[이영철 역], 철학적 탐구, 책세상, 2006, 94면 참조).

24)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46면.

25)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52면.

26)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153면.

27)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56면; 이때 사법적 영역이 특권화되고 갈등의 모든 형태에 대해 법이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뚜렷한 경향이 대두되기도 한다(같은 책, 176

더 심각한 문제는 다원주의와의 충돌이다.²⁸⁾ 민주적 정체에 있어서 갈등과 대립은 불완전함의 표지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고 그것 안에 다원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심의민주주의 이론이 지향하는 배제가 없는 합의 가능성은 이러한 다원주의가 해소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 어떤 이론보다 개인의 자유와 다원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이론이었지만, 중국에는 다원주의, 그리고 다원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에 다다른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무폐는 민주주의를 통해 조화가 실현되는 순간이 바로 민주주의가 해체되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⁹⁾

Ⅲ. 자유민주주의 역설(!)

1. 자유의 가치

지금까지 자유주의는 일정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실적인 정치적 원리를 의미하는 민주주의와는 충돌하거나 모순된다는 주장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극단화된 결론은 슈미트가 제기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부정하므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즉 자유민주주의는 파멸적 결과에 다다른 모순을 내재한다는 것이다.³⁰⁾

그리고 슈미트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나뭇의 순수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인민이 공동의 전제에 기초한 동질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은 설득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가 원자화되고 파편화될수록 민주주의 역시 쇠약해진다는 것을 우리 역시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슈미트는 동질성을 실체적 단일성의 양식으로만 이해한다. 개인과 집단의 자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다원주의를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³¹⁾

그러나 무폐는 정치적 결사체의 특징을 부여하는 자유주의의 결합을 지적하는 슈미트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다원주의를 배제하는 슈미트의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언급한 대로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의미를 적과 동지 사이의 구별, 그리고 그들 상호간의 투쟁

면).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좌절할 때에는 갈등은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드러낼 가능성도 높다.

28)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47면.

29)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58면; C. Mouffe(이보경 역), 정치적인 것의 귀환, 21면.

30)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66면.

31)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92면.

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는 유독 일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내에서 정치적인 것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다. 아마도 그가 처해 있던 현실 때문에 정치적 단일성의 파괴와 상실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³²⁾ 어찌 되었건 그가 꿈꾸던 민주주의가 나치의 전체주의로 귀결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생각해 보면 자유주의와 그를 바탕으로 한 다원주의가 배제된 민주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역사가 깊다. 존 스튜어트 밀과 토크빌의 이른바 '다수의 폭정' 논리는 그 중 대표적인 것이다.³³⁾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로 현실화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전체주의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물론 일부 의견은 이러한 예상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귀족이나 유산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옹호하는데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³⁴⁾

자유주의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인의 자유의 성취라는 근대성의 정치적 기획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전통, 즉 현존하는 일련의 담론들을 통해 주체로 구성되는 것이며, 이 전통에 의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며 모든 정치적 행위도 가능해진다.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않은 것, 정당한 것과 정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지만 이는 오직 주어진 전통 내에서 이 전통이 제공하는 기준의 도움으로만 행해질 수 있다. 우리에게 자유란 일종의 전통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의 가치가 배제된 정치체제는 그것이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전체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2. 타협이 아닌 감염 : 경쟁적 다원주의

자유주의 이론, 정확하게 말해 자유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판본들은 정치적인 것에 대한 무지로 인해 정치체제의 원리로서 민주주의와 결합하기 어렵다. 또 다원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원리가 되기도 한다. 적어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으려면 자유주의를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은 자유라는 용어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법률가들의 언어에서 자유는 절대권(imperium)의 의미, 즉 자기 고유의 법칙을 수행할 자유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 공화주의 언어에서 자유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만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는 정치적 동물

32)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87면 이하.

33) 다수의 폭정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J. S. Mill로 알려졌으나, 이 개념을 가장 인상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토크빌이라고 하겠다(A. de. Tocqueville[trans. by H. Reevel], Democracy in America, vol. 1, Vintage Books, 1990, p. 258).

34) J. Maravall, "The Rule of Law as a Political Weapo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Cambridge, 2003, p. 297.

로서의 인간관과 연결되어 국가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강조된다. 전자를 근대인의 자유, 후자를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에서 드러나는 고대인의 자유라고 말한다. 그리고 오늘날 정치 철학의 중심과제는 개인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근대인의 자유와 고대인의 자유의 접합이라고 주장한다.³⁵⁾ 이것은 자유주의와 정치적인 것 사이의 가교를 놓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가 다원주의와 결합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자유주의가 행한 공과 사의 엄밀한 구분은 포기될 수는 없겠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 구별은 별개의 분리된 영역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상황은 공과 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마주침이다. 다시 말해 욕구, 선택, 결정은 각 개인의 책임이기에 사적이지만, 그 수행은 공적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식으로 다원적인 의견이 배제되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자유주의식의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인식 역시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주장임을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적 정치 공간을 상대화한다.³⁶⁾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체주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인식하는 민주주의 이해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무폐는 민주적 동일성이 성취되려면 일정 정도의 사회적 동일성과 공유된 정치적 가치들이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사회적 적대의 제거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헤르만 헬러(Hermann Heller)의 말을 인용하면서,³⁷⁾ 슈미트가 이질성이 배제된 동질성을 민주주의의 주체에게 요구하는 것을 반대한다. 인민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만 동시에 정당, 종교, 도덕, 문화적 다원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폐는 이것을 슈미트의 동질성(homogeneity)과 구별하여 공통성(commonality)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³⁸⁾

이러한 식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를 참조하면서 스스로의 의미를 재구성해야 한다. 양자는 서로 적정 지점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염시키는 관계여야 한다.³⁹⁾ 이러한 관계의 핵심에는 다원주의가 있다. 즉 자유주의 그리고 심의민주주의 모델에서 제거한 다원주의의 적대적 차원과 그것이 결코 제거될 수 없다는 성격을 인식해야 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적대는 슈미트 식의 적대가 아니다. 적대는 두 정체성 간에 발생하는 외적 관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⁴⁰⁾ 즉 너희가 있어야 우리도 존재한다는 구성적 타자의 불가피한 공존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적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윤리적-정치적 원칙에 대한 충성과 공통의 기반을 공유하는 정당한 적, 다시 말해 경쟁

35) C. Mouffe(이보경 역), *정치적인 것의 귀환*, 67면.

36)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109면.

37) C. Mouffe(이보경 역), *정치적인 것의 귀환*, 206면.

38)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90면.

39)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26면.

40)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154.면; C. Mouffe(이보경 역), *정치적인 것의 귀환*, 13면.

자이다.⁴¹⁾ 이러한 경쟁적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가교가 놓이게 된다.

3. 자유민주주의의 역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조화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오래 전부터 민주주의를 평등화의 경향으로 정의 내려 왔다. 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 평등, 그리고 그 정치적 평등을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허상뿐인 것이 된다. 반면 자유주의의 지상명제는 자유이다.⁴²⁾ 그런데 우리는 자유가 없는 평등은 무의미하며, 평등이 없는 자유는 강한 자의 자유일 뿐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양자를 완전히 조화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자유를 증가시키면 평등이 줄어들고, 평등을 제고하면 자유가 위축되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방정식이다. 그래서 무폐는 자유와 평등 사이에 틀림없이 긴장이 항상 존재하며 그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⁴³⁾

하지만 무폐는 양자의 관계가 모순이 아닌 역설(paradox)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양자 사이의 긴장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다이내믹스를 만드는 소재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⁴⁴⁾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는 근대 사회의 전통, 즉 구성적 담론이다. 그리고 평등 역시 마찬가지이다. 양자 중 하나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양자 모두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⁴⁵⁾ 하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접합에 대한 갈등적 해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들이 다원주의 정치구조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 어떠한 것이 최적의 접합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심의민주주의의자들이 생각하는 최종적 해결이나 균형이 아니다. 오직 일시적이고 불안정하고 변화기 쉬운 자유와 평등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타협, 언제나 반대가 수반된 합의만이 존재할 뿐이다.⁴⁶⁾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가 끊임없이 조화해야 하는 소실점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해석되어 일종의 실체적 공동선으로서 통일성을 위해 상이성을 억압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

41)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117면.

42) 근대 정치에는 두 가지 상이한 전통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법의 지배, 인권의 보장과 개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로 구성되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과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시, 그리고 인민주권 등의 사상으로 구성되는 민주주의적 전통이 있다(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15면).

43)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188면.

44)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74면.

45) C. Mouffe(이보경 역), 정치적인 것의 귀환, 27면.

46)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75면, 173면.

으로는 다원주의의 한계가 된다. 적대적인 정당성 원칙들은 동일한 정치적 결사체 속에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과도하게 해석되어 다원주의적 경쟁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⁴⁷⁾

이러한 역설은 보기에 따라 만족스럽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다양한 원칙과 한계 사이의 최적점이 무엇인지 답변할 수 없다. 또 자유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완전히 우연적인 것으로 남아 있게 된다.⁴⁸⁾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긴장이 우리의 정치가 전체주의로 전락하거나 완전히 파편화되지 않도록 하는 최상의 보증물이라는 점이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역시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수많은 견해 중 느슨한 합의를 이룬 하나의 결절점일 뿐이다. 무폐의 말처럼 민주주의 혁명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결코 아니며, 일단 도달하면 그 지속적인 존재를 보증할 민주주의의 문턱 같은 것은 없다.⁴⁹⁾ 물론 이 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IV. 나오며 : 자유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위하여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국회의 낯선 대립과 몸싸움은 우리 정치가 극한의 갈등과 비효율에 함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보다는 경제, 국가보다는 기업에 희망을 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이 생각은 곧바로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의 고찰은 오히려 반대편에 사실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정치에서 다원주의적 갈등은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 벌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갈등이 완전한 조화에 이르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소멸하고 만다. 무폐는 합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대립에 대한 부인은 무관심과 정치적 참여에 대한 실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⁵⁰⁾ 그리고 이러한 무관심과 실망은 자유민주주의에 극히 위험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과정이 극한 갈등으로 점철되거나 그 때문에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공동체가 운영될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토대 위에 서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47)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145면; 무폐는 이러한 한계의 성격은 도덕성이나 합리성의 요건으로 제기되는 대신 정치적 성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48) 사실 무폐는 합리주의, 보편주의 그리고 환원주의를 극복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연성과 애매성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적 차원을 표명하는 것이다. 예컨대 E. Laclau · C. Mouffe(이승원 역),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후마니타스, 2012, 15면 참조.

49)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17면; C. Mouffe(이보경 역), 정치적인 것의 귀환, 18면, 210면.

50)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161면, 174면.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공동의 문법이다. 둘째, 정치적 대립을 하는 적이 있으므로 나 또는 우리 편도 존재할 수 있다. 그들은 이른바 구성적 타자이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절멸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셋째, 정적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우호적 적이다. 자유와 평등의 최적의 접합 그리고 공동선에 대한 더 나은 정의를 함께 쫓는 경쟁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북쪽을 향해 여행할 때 북극성을 따라 걷지만 북극성 그 자체에 이르는 것을 희망하지는 않는다.”⁵¹⁾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 어쩌면 도달할 수 없는 - 북극성을 향한 여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인지 모른다.

■ 참고문헌

- 김동춘, <대한민국 잔혹사>, 한겨레 출판, 2013.
- 최장집·박찬표·박상훈,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2007.
- 萱野稔人[김은주 역], <국가란 무엇인가>, 신논, 2010.
- A. Heywood[조현수 역], <정치학>, 성균관대 출판부, 2009.
- E. Laclau·C. Mouffe(이승원 역),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후마니타스, 2012.
- C. Mouffe(이보경 역),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2007 (*The Return of the Political*, VERSO, 2005)
- C. Mouffe(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인간사랑, 2006 (*The Democratic Paradox*, VERSO, 2000).
- R. Osborne[최완규 역],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시공사, 2012.
- J. Rawls(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 C. Schmitt[나종석 역],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길, 2012.
- J. Schumpeter(변상진 역),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한길사, 2011.
- J. Stiglitz(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 열린 책들, 2013.
- L. Wittgenstein[이영철 역], <철학적 탐구>, 책세상, 2006.
- P. Woodruff(이윤철 역), <최초의 민주주의>, 돌베개, 2012.
- S. Benhabib, “Deliberative Rationality and Models of Democratic Legitimacy,” *Constellations*

51) P. Woodruff(이윤철 역), 최초의 민주주의, 돌베개, 2012, 47면.

1(1). April 1994.

J. Maravall, *The Rule of Law as a Political Weapo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Cambridge, 2003.

C. Schmitt (trans. by E. Kennedy), *The Crisis of Parliamentary Democracy*, MIT Press, 1985.

C. Schmitt, *Verfassungslehre*, Duncker&humblot, 1928(Neudruck 1954).

A. de. Tocqueville [trans. by H. Reeve], *Democracy in America*, vol. 1, Vintage Books, 1990.

「자유민주주의의 역설적 성격에 관한 고찰」에 대한 토론

소인호 / 청주대학교 국문과

그동안 학회를 진행하면서, ‘융합인문학’의 지평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구성원들의 학문적 다양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법학을 전공하시는 조한상 교수님께서 흔쾌히 발표를 맡아주셔서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역설적 성격”이라는 발표 제목처럼, 질의자는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에 일면 불편함과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곡된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자유’와 ‘민주’의 사전적 정의는 실제 현실 속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는 사실상 억압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개념이었으며, ‘민주화’라는 말은 보수 사회로의 회귀 과정에서 오히려 ‘소외시키다, 왕따시키다’라는 의미로까지 비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주적 근대화의 실패 이후 지구상에 유래가 없는 압축적 시공간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일제식민지와 냉전 체제, 미군정의 신식민지, 군사독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본래적 가치가 실종되고 천민자본주의로 표상되는 물리적, 문화적 위험 사회에 도달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발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발표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을 어렵 뜻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저의 아둔함을 자책하며, 이 기회에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상탈 무폐의 저서(『민주주의의 역설』)를 꼭 읽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제를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니만큼, 소박한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고자 합니다.

1. 남북의 대치 상황이 말해주듯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일견 모순된 개념인 듯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 쪽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면 똑같이 불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사회는 파국으로 치닫고야 말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원주의적

같아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역동성의 원천이라는 발표자의 논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거시 담론과 미시 담론의 강조점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강요된 '자유' 민주주의의 도그마에 짓눌려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 가치'의 회복이 더욱 절박한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빙자한 기득권 세력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독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경기장은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남녀는 유별하지만 처형이 물에 빠졌다면 당연히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맹자의 논리, 즉 상도(常道)와 권도(權道)의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결론의 “정적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우호적 적이며, 공동선에 대한 더 나은 정의를 함께 쫓는 경쟁자”라는 언급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자칫 기계적 절충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보수 언론의 양비론이 정치 무관심을 조장하고, 결국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갈등의 변증법적 해결이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옳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보편적 양심에 기초한 선악의 구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에서 “현실에서 합의는 패권의 표현이고 권력관계의 결정”이라고 했듯이, 죄 없는 피해자가 100원을 고스란히 빼앗기든 합의를 통해 50원을 빼앗기든 모두 잘못된 일일 테니까요. 법적,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문제, 인문적 가치판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용어상의 문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역사적/초역사적, 정태적/역동적, 계량적/가치적, 생산적/소비적 의미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people, folk, nation, citizen, mass, proletariat 등 용어 선택과 번역의 문제가 뒤따릅니다. 발표문에는 ‘인민’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국정원이나 검찰의 눈에 띄면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소심한(?)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인민-민중-대중-국민-백성(민)-시민 등의 유사 용어 가운데 특별히 ‘인민’이란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요?

대학원 세션

▣ 공감의 글쓰기, <운영전>

/ 유요문(고려대 대학원)

공감의 글쓰기, 〈운영전〉

유요문*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17세기 작품으로 여겨지는¹⁾ 〈雲英傳〉의 서술기법 양상을 공감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작품에 내재된 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운영전〉에 나타난 글쓰기의 특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전〉은 36종의 이본이 확인되고 있고, 이들을 다시 세 계열로 분류해 살펴볼 수 있다.²⁾

* 고려대 대학원 국문학 석사과정. niceyym@naver.com

1) 그간 이 작품을 17세기의 저작으로 본 견해는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유영이 만력 신축력 이후 생애의 어느 시기에 지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오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 「〈운영전〉 소고」, 『조선 후기 소설 독자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5.)이고, 또 하나는 국립중앙도서관본 『三芳要路記』의 〈운영전〉 부분 표제 아래에 흐릿하게 옮겨 쓴 ‘大明 天啓 二十一年’ (1641년)의 기록을 저작연대로 보는 견해(박일용, 「〈운영전〉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9집, 한성대, 1990.)이다. 그런데 『삼방요로기』 문헌은 〈요로원야화기〉가 수록되어 있어 〈요로원야화기〉가 지어진 1708년 이후의 것이고, 문제의 기록은 필체가 다른 후대의 가필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장효현, 「17세기 몽유록의 역사적 성격」,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117-8쪽 각주4 재인용).

반면, 이 작품을 18세기 이후 저작으로 본 견해(소재영, 배원룡 등)도 있지만 학계에서는 17세기 창작설이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운영전〉의 창작연대와 관련해서는 다음 논문들이 도움이 된다. 오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 앞의 논문; 소재영, 「〈운영전〉 연구」, 『아세아연구』 통권 41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박기석, 「〈운영전〉의 재평가를 위한 예비적 고찰」, 『국어교육』 37, 서울사대 국어교육연구회, 1980; 배원룡, 「〈운영전〉과 〈영영전〉의 비교고찰」, 『국제어문』 2, 1981;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9집, 한성대, 1990; 조용호, 「〈운영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 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

2) 장효현 외, 「운영전」, 『교감본 한국한문소설 전기소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운영전〉의 이본들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들이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9집, 한성대, 1990; 박혜진, 「〈운영전〉 이본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3.

본 작품은 전기소설(傳奇小說)의 전통과 닿아 있으면서도 장편소설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 궁녀라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 간다는 점, 무엇보다 고전소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학계에 주목을 받아왔고, 현재까지 꾸준히 그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작품의 문학사적인 의의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작가가 미상(未詳)으로 남아있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즉, <운영전>이 우리 문학사에서 뛰어난 작품으로 인식되는 반면, 작가에 대한 실마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전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작가가 작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쓰기 방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글쓰기 방법이란 곧 작가의 글쓰기 전략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심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꾸준히 가져왔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소설기법적 차원에서 작가의 서술 의식을 알아보려는 연구들이 검토되었는데, 이들 연구들은 다시, 구조를 대상으로 한 연구³⁾와 서술자와 시점을 대상으로 한 연구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작품의 서사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고, 후자는 1인칭 서술자나 시점을 통해 작가의 서술전략을 고찰하였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서술기법 측면에서 작품을 바라봄으로써 작가의 서술의식이나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 논의들은 비극적 원인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것보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로 신재홍과 엄태식의 논의가 있다. 신재홍⁵⁾은 <운영전>의 서술구조와 시점, 등장인물을 분석하여, 그 서술구조가 매우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복잡성은 작가가 주도면밀하게 사건을 구성하여 전개시킨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거의 은거하거나 사랑이나 사물 등에 탐닉한다는 점을 들어 <운영전>을 ‘세상을

3) 정해주, 「운영전의 비극적 구조 고찰」, 성신여자사범대 석사학위논문, 1975; 윤해옥, 「운영전의 구조적 고찰」, 『국어국문학』 84, 국어국문학회, 1980; 성현경, 「운영전의 구조」, 한국어문학회 편, 『조선 후기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82; 하은하, 「운영전에 관한 양식내적 접근」,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1995; 백완, 「운영전의 시간구조 고찰」, 『건국어문학』 23,24 합집, 건국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9;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최재우, 「운영전 갈등구조의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열상고전연구』 29, 열상고전연구회, 2009; 엄태식, 「<운영전>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4) 김장동, 「<운영전>의 시점과 시제의식」, 『한국문학연구』 8,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1985; 심치열, 「운영전의 서사체계와 주제의식」, 『어문연구』 8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6; 조용호, 「<운영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정희정, 「<雲英傳>의 액자기능과 서술 상황」, 『한국언어문학』 44, 한국언어문학회, 2000; 김정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김지연, 「<운영전>의 시점과 서술자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5)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등지고 숨어사는 자의 내면 풍경을 그린 작품' 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운영전>의 가치를 '숨김의 미학' 으로 집약시켜 작가의 심미적 탐색의 일환으로 보았다. 엄태식⁶⁾은 중층적 액자구조를 통해 운영이 死後에 所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운영의 목소리에 왜곡·배제·선택이 일어났을 제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독서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운영의 목소리가 아닌, 주변 인물들의 객관적 목소리를 통해 안평대군을 살피고자 하였다.

앞선 연구들이 비극성을 입증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면, 서술기법 차원에서 작가의 서술 의식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밝히는 연구들은 비교적 적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해, 기존의 논의들은 <운영전>을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간주하면서도 <운영전>에 사용된 문학적 장치들을 다루는 분석 작업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액자구조의 수용이나 서술방식의 특이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액자구조가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혹은 서술자가 <운영전>이라는 작품을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재현시키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미흡했던 것 같다. 따라서 본고는 <운영전>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수용미학(受容美學)적으로 검토하고, 그 주제의식을 밝히도록 하겠다.⁷⁾

II. 공감의 구조 형성

공감(共感, empathy)이란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생긴 것이다. 독일에서 '안으로 들어가 느끼다' 혹은 '더불어 안에서 느끼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영어로 번역되고 우리 학계로 소개된 것인데,⁸⁾ 풀이하자면 '내가 아닌 타자의 내면세계에 들어가서 느끼는 감정' 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여기서 공감은 동감(同感)이나 감정이입(感情移入)과 같은 층위로 볼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공감이 동감이나 감정이입보다 한 차원 높은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공감은 이들보다 적극적인 참여이자, 관찰자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는 것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⁹⁾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공감의 구조란, 작가가 만들어 놓은 기법이자 장치로서 독자들과

6) 엄태식, 「<운영전>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7) 아울러 본고에서 인용되는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본 『三房錄』에 수록되어 있는 <柳泳傳(即雲英傳)>으로 하고, 번역은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월인, 1999)의 것을 따르나, 필요할 경우 필자가 수정하였다.

8) 용어의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 저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제레미 리프킨 著, 김정남 譯,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19-20쪽.

9) 염은열, 『공감의 미학, 고려속요를 말하다』, 역락, 2013, 21쪽.

공감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작가가 만들어 놓은 장치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타자인 우리가 소설 속 등장인물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게 되는지를 밝히는 작업인 것이다.

1. 구조의 중층성

<운영전>의 구조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서술 기법은 ‘중층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액자 구조라고도 불리는데 다른 고소설 작품¹⁰⁾에 비해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운영전>의 중층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액자 안이 1인칭 여성등장인물 운영인 반면, 액자 밖은 3인칭 서술자로 되어있다. 또한 작가는 여성 서술자를 통해 일정부분 여성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처럼 ‘위장’ 하면서 작품을 서술해 나간다. 반면, 액자 밖의 3인칭은 유영이라는 인물에 고정되어 있어 3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유영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다.¹¹⁾ 또한 운영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액자 내부에서도 자란에게 김진사와 만남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또 다른 액자가 형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운영전>의 액자 구조는 꽤 복잡한 중층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운영전>에 나타난 중층적 액자구조의 기능을 다양하게 해석해 왔는데,¹²⁾ 이렇듯 액자구조의 기능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원인은 그 기능에서 주제의식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세세하게 논의한 바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그 기법적 효과를 작품에서 발휘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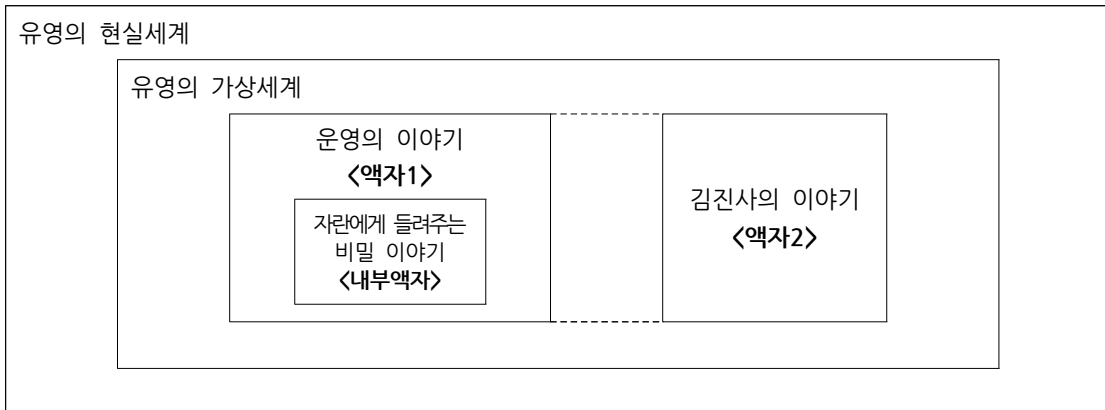
소설에서 작가는 곧바로 자신의 생각이나 주제의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만약 작가가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생각을 전달한다면 그것은 소설이 아닌 수필이나 역사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술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서술자는 작가의 분신

10) 액자담론의 전통은 고대 민담류, 『삼국사기』 열전, 『삼국유사』의 액자형 서사물에서부터 ‘전(傳)’ 양식이나 몽유록 계열의 서사물, 조선조 국·한문소설, 개화기 소설을 거쳐 최근의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계승·변용되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보고 있는 액자구조는 조금 다른 층위에서 독특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11)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120쪽.

12) 정희정은 액자의 기능이 소설의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느껴지게 하도록 정보의 설득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희정, 「〈雲英傳〉의 액자기능과 서술 상황」, 『한국언어문학』 44, 한국언어학회, 2000, 264-267쪽/ 신재홍은 숨김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사건을 조금씩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신재홍, 앞의 논문, 120쪽/ 안창수는 내부액자와 외부액자가 서로 대응을 이루며 동일한 의미에서 문제의식을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창수, 「〈운영전〉에 나타난 규범과 일탈의 변증법」,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학회, 2011, 329쪽.

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가 자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소설은 작가에 의해 창조된 이야기꾼인 서술자의 말과 생각을 통하여, 혹은 작중인물들의 말과 행동, 사고를 통하여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¹³⁾ 이것은 서술자란 작품의 등장인물(1인칭)이 될 수도 있고 사건 밖에 빠져있어 목소리를 내는 존재(3인칭)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서술자는 작가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지만 작품 내에서 서술자의 위치로 의지·가치관을 투영시킬 수 있다. 다음은 서술자를 중심으로 <운영전>의 구조를 세분화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운영전>의 중층적 액자구조¹⁴⁾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운영전>의 서술구조는 중층적인 액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택한 것은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서술자가 바뀐다고 해서 자신이 펴내고자 하는 바를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술자에 대한 연구나 구조에 대한 연구는 목소리가 바뀌는 효과에 대해서만 주목해온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운영전>의 중층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술자의 변화만 염두(念頭)할 것이 아니라 청자의 변화도 함께 파악하여야 한다.

<운영전>에서 김진사와 운영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은 모두 유영(柳詠)과 자란(紫鸞)이다. 이들은 청자이면서 서술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여기서 정보는 사건에 대한 비밀을 말하며 청자가 이에 깊게 관여하거나 알게 될수록 서술자와 청자의 관계는 긴밀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청자의 정보량이 서술자의 정보량과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운영

13) Lubomir Dolezel, 「화자의 유형이론」, 김병욱 편/최상규 역, 『현대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1984, 405쪽.

14)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119쪽 참조. 이 틀을 토대로 필자의 논지에 맞게 수정하였음.

전〉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작가는 이들을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층적 구조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바로 작가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산된 하나의 전략의 일환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2. 청자의 기능

< 운영전 >에서 유영의 서술자로서의 역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목받았었지만,¹⁵⁾ 그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액자라는 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유영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운영전 >에서 운영과 김진사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텍스트 내에 재현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줄 인물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인물이 유영이고, 운영의 이야기는 유영의 꿈이라는 의도된 액자를 통해 외부로 드러난다. 유영은 내부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인 동시에 김진사와 대화를 주도함으로써 제 2의 서술 층위를 형성하는 동시에 내부 이야기 속에는 없는 주인공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유영과 함께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에 참여하게끔 한다.

또한,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김진사가 유영에게 “엿드려 바라건대, 존경하는 그대가 이 글을 거두어 세상에 전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되, 경박한 사람들의 입에 함부로 전해져 노리갯감으로 삼지 않게 해(伏願尊君 俯拾此藁 傳之不朽 而勿使浪傳於浮薄之口 以爲戲翫之資)” 달라고 한 곳에서 알 수 있듯이 유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 하는 ‘매개자’의 역할, 즉, 서술자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영의 서술자적인 모습에 치중한 나머지 유영의 기능 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유영이 사건을 듣는 ‘청자’의 기능이다. 왜냐하면 유영은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한 공감으로 인해 가져지는 관심인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유영의 청자로서 가지는 기능을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유영이 이러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15) 이상구는 “그러나 몽유록의 형식을 빌고 있는 < 운영전 > 전체를 통합적으로 볼 때, 이들의 술회는 몽유자 유영의 꿈에 불과하다. 즉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인 사랑은 당사자들이 술회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형태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내용상 이들의 이야기는 유영 자신이 꾸었던 꿈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영은 작가를 대변하는 서술자인 셈이다. 따라서 < 운영전 >의 안평대군은 유영과 같은 인물의 시각에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 하여 그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상구, 「< 운영전 >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157쪽 재인용.

유생은 부끄럽고 무료해서 이내 후원으로 들어갔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니, 갓 전란을 겪은 뒤인지라 장안의 궁궐과 성안에 가득했던 화려한 집들이 텅 빈 채 남아있지 않았다. 무너진 담과 깨어진 기와조각, 폐쇄된 우물과 무너진 돌계단 사이에는 잡초가 무성했으며, 동쪽 문 몇 칸만이 흘러 우뚝 솟아 있었다.

[生慙而無聊，乃入後園。登高四望，則新經兵燹之餘，長安宮闕，滿城華屋，蕩然無有，壤垣破瓦，廢井堆砌。草樹茂密，唯東廊數間，巋然獨存。]

유영은 수성궁의 경치가 빼어나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지만, “옷이 남루하고 용모와 안색이 초라한(衣裳藍縷 容色埋沒)” 그를 본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그가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본 수성궁 혹은 현실세계는 “무너진 담과 깨어진 기와조각, 폐쇄된 우물과 무너진 돌계단 사이에는 잡초가 무성(壤垣破瓦 廢井頽砌 草樹茂密)” 한 곳이었기에 그가 인식한 세계 역시 비참한 현실인 것이다. 그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는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의 모습을 먼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것을 독자들은 더욱 세세하게 현실의 비참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이렇듯 유영의 있던 현실세계는 전란이 갓 끝난 부정적인 혼돈의 공간이었고, 김진사와 운영을 만난 공간은 긍정적인 인식이 바탕에 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간에서 슬퍼하는 이유를 묻자 김진사는 “저는 젊은 혈기와 호탕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이 여자와의 연고 때문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육신으로 마침내 불효의 자식이 되어 천지간에 한 죄인으로써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僕以年少俠氣 志意浩蕩 不能自抑 又以此女之故 將父母之遺體 竟作不孝之子 天地間一罪人之名)” 라고 말하여 유영과 같이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즉, 유영도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슬퍼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욱 상세히 알려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그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공감’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들이 유영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매우 성공적인 것이고 이들 셋이 한층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유생이 말했다.

“말을 꺼내었으되 다 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예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안평이 한창 활동하던 때의 일과 진사가 슬퍼하는 연유를 상세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生曰，言出而不盡，則初不如不言之爲愈也。安平盛時之事，進士傷懷之由，可得聞其詳乎?]

따라서 김진사는 유영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부탁하게 되는데, 하나는 안평대군의 성시(盛時)의 일이고, 하나는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으

로 운영은 “가슴속에 쌓인 원한을 어느 날인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험 삼아 말할 테니, 낭군께서 곁에 계시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주십시오.[心中畜怨 何日忘之? 妾試言之 郎君在傍 補其闕漏]” 라고 말하면서 내부 액자의 이야기를 유영에게 들려준다. 작가는 유영이라는 인물을 통해 청자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지만 결국 이 작품에서 운영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는 바로 실제 현실의 독자이다.

따라서 유영의 질문은 운영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을 유영 혹은 독자에게 잘 설명하여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이야기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작가가 만들어 놓은 이 중층적 구조는 유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작가가 독자와 소통하기 위한 공감의 공간으로 청자와 함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또 다른 청자인 자란의 기능도 유영의 기능과 비슷하다. 다만 자란은 비밀을 공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야기 내부에 존재하는 등장인물이자 서사를 전개해 나가는 서술자의 역할까지 맡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은 자란이 운영의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묻자, 운영이 자란에게 해주는 비밀 이야기이다. 즉, 표에서는 내부액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① 이날 밤 자란이 지성으로 내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태어나면 시집가려는 마음은 모두가 지니는 것이니 네가 그리워하는 이가 어떤 정인(情人)인지 모르겠으나, 네가 날이 갈수록 옛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워 진심으로 묻는 것이니 숨기지 않길 바란다.”

첩이 일어나 사례하며 말했습니다.

“궁인들이 매우 많아 몰래 옛들을까 두려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묻는데 무엇을 숨기겠는가?”

[是夜, 紫鸞以至誠問於妾曰, 女子生而願爲有嫁之心, 人皆有之. 汝之所思, 未知何許情人, 悶汝之形容, 日漸減舊, 以情憫問之, 妾須毋隱. 妾起而謝曰, 宮人甚多, 恐有囁喧, 不敢開口, 今承憫福, 何敢隱乎?]

② “내가 이때부터 누워서도 잠을 잘 수 없고, 먹어도 마음의 번뇌를 덜 수 없어 어느덧 옷의 띠가 느슨해졌는데, 너는 알지 못했니?”

제가 묻자, 자란이 말했습니다.

“난 잊고 있었어. 이제 네 말을 듣고 나니 홀연 술에서 깬 듯하구나.”

[妾自是, 寢不能寐, 食減心煩, 不覺衣帶之緩, 汝未能織之乎? 紫鸞曰, 我忘之矣. 今聞汝言, 況若酒醒.]

③ 그 후로는 잠시도 잊을 수가 없어서 바보처럼, 미친 사람처럼 말과 표정을 지었으니,

주군이 의심하고 사람들이 괴이하게 말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죠. 자란도 한이 있는 여자라서 이 말을 듣고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지요.

“시는 성정에서 나오는 것이니 속일 수가 없구나.”

[自是厥後，頃刻不忘，如癡如狂，見於辭色，主君之疑，人言之怪，實不虛矣。紫鸞亦怨女，及聞此言，含淚而言曰：“詩出於性情，不可欺也。”]

①은 내부액자로 진입하는 부분이다.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비밀 이야기였지만, 자란이 적극적이면서도 진심으로 운영을 걱정해주면서 운영은 자란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다. 그 후 김진사를 만나게 된 경위를 말해주고, 이때부터 아프게 되었음을 알려주자 ②와 같이 잠깐 액자외부로 빠져나와 자란이 운영의 아프게 된 이유를 알게 된다. 이어서 운영의 이야기는 액자 내부로 들어가서 김진사에게 편지를 전달한 것을 설명하고 ③과 같이 액자내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운영의 고백 부분이다.¹⁶⁾

위와 같이 내부액자 혹은 운영의 고백부분은 <운영전> 전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운영과 김진사의 만남이 성사되는 부분을 알려준다는 점, 운영이 사람들 몰래 벽을 뚫고 김진사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점 등 운영이 자란에게 이야기한 비밀은 서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인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는 자란이 처음 운영에게 물었던 아픈 이유를 알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자란에게도 ‘사랑’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조금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③으로 가는 과정을 듣고, ‘자란 역시 한이 있는 여자라,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머금’는 모습은 비밀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감을 하게 되는 차원으로 변한 것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이때부터 자란은 운영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따라서 자란의 기능은 청자로서의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내부액자의 비밀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장치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작가는 운영의 말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동시에 자란을 등장시켜 마치 독자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운영의 이야기를 더욱 손쉽게 공감할 수 있게 된다. 그녀의 이야기는 분명 중세 질서에 대립되는 것이며, 질서에

16) 이에 대한 신재홍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그는 윤희옥의 논문(윤희옥, 「운영전의 구조적 고찰」, 『조선시대 우연 우화소설 연구』, 박이정, 1997, 25쪽)과 이상구의 책(이상구, 『운영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119쪽과 271쪽)을 들어 이 부분이 잘못 나누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잘못은 작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고쳐질 것을 촉구했다; 신재홍, 앞의 논문, 117쪽 각주22번.

최근 집필된 번역서인 “이대형 외, 『유영전』, 『삼방록』, 보고사, 2013, 120-121쪽 각주38”에서도 ‘여기까지 운영이 자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임.’ 이라고 하여 내부액자의 범위를 잘못 설정하였다.

순응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운영을 통해 자란의 감복(感服)한 모습은 결국, 독자에게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된 장치인 것이다.

Ⅲ. 안평대군의 이미지와 활용

앞서 청자인 유영은 김진사와 운영에게 안평대군의 성시와 그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의 요청은 그의 관심사가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앞으로의 이야기 또한 그렇게 전개될 것을 알려주는 지표(指標)이다. 이것은 작가 자신이 청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동시에 작가 자신의 관심사를 대변하고 있다. 즉 작가의 관심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뿐만 아니라 안평대군의 일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전>은 안평대군의 행적과 패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소설임은 분명하다.¹⁷⁾ 그러나 <운영전>은 안평대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에 할당하고 있는 부분은 미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의 중세적·비극적 성격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⁸⁾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은 작가의 창작의도를 밝히기 위해서 안평대군을 언급하면서도 텍스트 내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그 한계가 명백하며, 최근에 논의된 연구 또한 15세기의 안평대군 실기에 머물러 있어, <운영전>이 창작되었던 17세기의 관련성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작가의 공감을 위해 선택된 안평대군의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알라이다 아스만에 의하면 회상은 “근본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며, 그것은 항상 현재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회상할 시점에서 기억된 것이 치환, 변형, 왜곡, 가치 전도 내지는 복구되는 것이 불가피하다”¹⁹⁾고 한다. 다시 말해, <운영전>에 나타난 안평대군에 대한 모습은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안평대군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운영전>이 창작된 17세기 당시의 안평대군에 대한 언급을 종합해 그 의식의 흐름을 파악하고,

17) 조용호, 조용호, 「<운영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40쪽.

18) 황혜진은 안평대군의 실기를 바탕으로 <운영전>과 비교하면서 <운영전>의 안평대군에 대한 논문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는 창작 시기나 창작 주체에 대한 논의가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된 연구. 둘째는 작품의 주제적 의미나 작가의식을 추론할 때 안평대군의 평가에 대한 논쟁들인데 이는 다시 안평대군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이데올로기의 화신으로 애정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견해와 후자는 안평대군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운영과 김진사와 같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황혜진, 「고전소설 소재 인물의 역사적 삶에 대한 연구 -<운영전>의 안평대군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121-122쪽.

19) 알라이다 아스만 著, 변학수·채연숙 譯,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33쪽.

이를 통해 작가가 어떻게 독자와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1. 죄인의 이미지 희석

중국에서는 건문(建文) 때에 절의에 죽은 신하와 경태(景泰) 때에 옳은 것을 주장한 사람을 모두 뒤에 설원(雪冤)하고 증적을 해서 사람마다 전하고 집집마다 외워서 문자에 실어 사적을 바르게 써서 후인들을 권면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인년의 변과 계유·을해년의 변을 모두 숨기고 감히 말하지 않아 지금은 2백 년이 지났어도 갈수록 더욱 심하다. 그래서 안평대군(安平大君)·김종서(金宗瑞)·황보인(皇甫仁)이 무고(誣告)로 죽은 것과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의 큰 절의도 모두 감추고 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꽃다운 향기와 나쁜 냄새는 섞이기 어렵고 하늘의 이치는 지극히 밝으니 비록 문자에 실린 기록은 없지만 세상 사람의 입은 가릴 수 없는 것이다.

皇朝於建文死節之臣, 景泰柄用之人, 率皆追雪褒贈, 人傳家誦, 載之文字, 直書事跡, 以爲後勸, 而我國則戊寅之變, 癸酉乙亥之變, 率皆祕不敢言, 今過二百年, 愈往愈甚. 如安平, 金宗瑞, 皇甫仁之誣死, 成三問, 朴彭年等之大節, 至皆闇昧不傳. 然芳臭難混, 天理孔昭, 雖無文字之載錄, 世間人口, 有未可掩者.²⁰⁾

위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활동한 신희의 글인데, 수양대군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된 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죽은 안평대군·황보인·김종서는 무고(誣告)로, 생육신들인 성삼문·박팽년 등은 절의(節義)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글의 제목이 ‘정의를 구하는 글(求正錄)’인 것을 보면 신희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평가가 잘못 내려져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또한 마지막 문장에서 ‘비록 문자에 실린 기록은 없지만 세상 사람의 입은 가릴 수 없(雖無文字之載錄, 世間人口, 有未可掩者)’라고 서술한 것은 이들의 죄에 대한 억울함을 알리고, 당시의 불합리함을 폭로한 셈이다. 이렇듯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폭로하면 할수록 안평대군의 죄인의 이미지는 희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력(萬曆) 정미년에 선원록 교정청(璿源錄校正廳)이, ‘방간을 신설(伸雪)하는 여부에 대해서 《실록》을 상고해 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용(李瑢)의 자손의 예에 의거하여 삭제하기를 청하였는데, 용은 바로 안평대군(安平大君)이다. 이에 선조(宣祖)께서 하교하기를,

“이 사람들은 모두 우리 태조의 자손이다. 오늘날 군신(君臣)들은 마땅히 태조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아야 한다. 당시의 일을 생각해 보면, 필시 스스로를 삼가지 못하여서

20) 申欽, 《상촌선생집》 제52권, 〈求正錄〉 上, 春城錄.

일시적으로 죄를 얻은 데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1백 년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 죄적(罪籍)이 남아 있어 그 자손들로 하여금 천역에 정역(定役)되고 유리하여 보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연코 열성(列聖)들의 뜻이 아니다. 당시에 지은 죄를 진실로 용서하기는 어려우나 백세의 후손을 어찌 영원히 끊을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모두 용서하여 《선원록》에 기록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다고 여긴다. 내가 그 죄의 경중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스스로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건대 온편치 못한 바가 있다.”

萬曆丁未, 《瑠源錄》校正廳以芳幹伸雪與否, 未得考出《實錄》, 請依瑠子孫例削去, 瑠卽安平大君也. 宣祖下教曰, “此人等, 我太祖子孫, 今日君臣, 當以太祖之心爲心. 思想當時, 必不過不自謹慎, 偶然得罪於一時, 于今百年之後, 仍存罪籍, 使其子枝, 定爲賤役, 流落不保, 斷非列聖之意也. 一時之孽, 固宜難追, 百世之派, 豈可永絕? 予以爲, 竝赦許錄, 未爲不可. 予不知厥罪之輕重, 然妄自忖度於心, 有所未安.”²¹⁾

위의 글은 앞서 언급한 신흠과 동시대를 살아온 선조(宣祖)의 말을 인용한 <조선왕조실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선원록》은 조선왕실의 족보로 왕권의 정통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회안대군(懷安大君) 이방간(李芳幹)과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은 역모를 꾀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인정하면 왕권의 정통성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들을 왕실의 족보에 편입시키는 일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조는 이들에 대해서 포용(包容)하는 뜻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우연히 죄를 얻었(偶然得罪於一時)’ 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선원록》에 기록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다(予以爲, 竝赦許錄, 未爲不可)’ 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안평대군의 죄는 세월이 흐르면서 희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전란이 끝나고 왕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선조가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앞서 신흠이 안평대군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는 안평대군에 대한 평가는 죄인의 이미지가 희석되고 있었고, 오히려 후에 죽은 사육신들과 함께 묶여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인물로 서서히 이미지화가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선조 또한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안평대군에 대한 이미지를 이들과 함께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안평대군이 가지고 있던 죄인의 이미지가 희석되었기 때문에 선조는 왕권의 정통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조조(仁祖朝)의 왕녀(王女)이니 다른 사람과는 구별이 있는데도, 뒤돌아보고 꺼리는 바가 없이 서인(庶人)으로서 죄로 죽은 자처럼 하니, 이것이 무슨 도리(道理)인가? 이미 죄로써 폐고(廢錮)되었다면 그 작호(爵號)를 회복시킬 수가 없지만, 후(厚)한 것을 따르는 도리로

21) 『조선왕조실록』, 인조 18년 경진(1640, 송정 13), 3월 19일(경자).

씨 말한다면 전작(前爵)을 쓰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나?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은 죄로 죽었지만 《선원록(璿源錄)》에 기록되었고, 선조(先朝)께서도 항상 그 필법(筆法)을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안평의 필법’이라 하였지 죄인의 필법이라고 일컫지 않으셨다. 근래에 사대부들이 왕족(王族)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을 능사로 삼는다.

仁祖朝王女, 與他人有別, 而無所顧藉, 有若庶人罪死者然, 此何道理耶? 既已罪廢, 則不可復其爵號, 而以從厚之道言之, 書以前爵, 有何不可乎? 安平大君瑢, 以罪死懸錄於《璿源錄》, 而先朝常稱其筆法曰安平筆法, 不以罪人筆法稱之. 近來士大夫, 以凌侮王族爲能事.²²⁾

다음은 숙종(肅宗)이 왕실의 종친이자 김자점의 역모사건과 연관된 효명옹주(孝明翁主)를 복호(復號)시켜 발인(發引)하게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그 작호(爵號)의 부당함을 상소하자 안평대군의 일을 들어 효명옹주와 동일한 위치에 놓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즉, 안평대군의 무고한 죄에 기대어 효명옹주에게 작호함의 정당함을 설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숙종은 선왕(先王)의 말을 인용하여 죄인의 필법이 아닌 안평의 필법이라고 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당시 안평대군은 계유정난 때 난(亂)을 일으킨 죄인이 아닌, 문(文)을 숭상하던 무고한 왕족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안평대군의 일에 기대어 효명옹주의 일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안평대군이 무고(無告)로 죽었다고 생각한 의식은 <운영전> 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모든 이야기가 마친 후, 유영은 오랜 일을 아직까지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김진사가 대답한 말이 의미심장하기에 인용하도록 하겠다.

김생이 눈물을 흘리며 사례하여 말했다.

“우리 두 사람 다 원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 다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대군이 한 번 패배한 이후로 고궁(古宮)에는 주인이 없으며, 까마귀와 참새가 슬피 울고 인적이 이르지 않아 슬픔이 극에 달한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 병화를 겪은 뒤에 화려했던 집들은 재가 되고 회칠한 담장은 모두 무너졌는데, 오로지 섬돌의 꽃은 향기롭고 뜰의 풀들만 무성합니다. 이렇듯 봄빛은 옛날의 정경을 바꾸지 않았으나 인사(人事)는 변하여 이처럼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곳에 와서 옛일을 회상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金生垂淚而謝曰, 吾兩人皆含怨而死. …… 但今夕之悲傷, 大君一敗, 故宮無主人, 烏雀哀鳴, 人跡不倒, 已極悲矣. 況新經兵火之後, 華屋成灰, 粉牆摧毀, 而唯有階花芬菲, 庭草藪榮, 春光不改昔時之景敬, 而人事之變易如此, 重來憶舊, 寧不悲哉?]

김진사는 ‘한 번 패배[大君一敗]’ 라는 말을 통해 안평이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형인 수양대

22) 『조선왕조실록』, 숙종 26년 경진(1700, 강희 39), 9월 16일(을사).

군에 의해 강화도로 유배가 사사당한 일을 알고 있다. 김진사가 슬퍼한 이유는 바로 수성공의 모습을 통한 안평대군의 '패배'의 동조이다. 그의 언사는 수성공의 쓸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인간사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죄를 지었다고 서술되어 있지 않고, 다만 패배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즉, 안평대군은 작가에게서 이미 죄인의 모습보다는 역사의 희생된 개인의 이미지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렇게 본다면 작가는 안평대군 역시 김진사와 운영과 같이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으로 인식한 것이기 때문에 유영의 슬퍼하는 까닭에 대해서 안평대군의 일을 언급한 것이다. 즉, <운영전>의 등장인물들인 김진사, 운영, 안평대군, 유영 등은 모두 비슷한 유형의 인물들로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해내고 있다.

2. 문인의 이미지 강화

광묘(光廟)가 정난(靖難)할 당시에, 안평대군(安平大君)은 고귀한 공자(公子)로서 문장(文章)과 재화(才華)와 한묵(翰墨)으로 스스로 즐기면서 한때의 명류(名流)들과 두루 교유하였으므로, 누구도 그를 흠모하여 붙좃지 않은 이가 없었다. 안견 또한 기예로써 공자의 초대를 받았는데, 안견은 본디 필치가 뛰어났으므로, 공자가 특별히 그를 사랑하여 잠시도 그의 문안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 안견으로서는 시사(時事)가 위태로움을 알고서 스스로 소원해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공자가 연시(燕市)에서 용매묵(龍媒墨)을 사다놓고는 급히 안견을 불러 먹을 갈아서 그림을 그리게 하였는데, 마침 공자가 일어나 내당(內堂)에 들어갔다 돌아와 보니 용매묵이 없어졌다. 공자가 노하여 시비(侍婢)를 꾸짖으니, 시비들이 스스로 변명을 하면서 안견을 의심하는 기색이 있었다. 그러자 안견이 일어나서 소매를 떨치며 스스로 변명을 하는 도중에 먹이 갑자기 안견의 품 안에서 떨어지니, 공자가 대번에 노하여 그를 꾸짖어 내 쫓으면서 다시는 그의 집에 근접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안견은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달려 나와 집에 돌아와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은복하여 자중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마침내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전파되었다. 그런데 이윽고 공자가 대죄(大罪)에 걸리자, 그의 문하에 출입하던 자들이 모두 연루되어 죽었으나, 안견만은 유독 이 일 때문에 화를 면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제야 비로소 그를 이상하게 여기었다. …… 나는 본디 그림을 알지 못하나, 이 화폭을 보건대, 그 수석(水石)의 푸르고 아득함과 풍연(風煙)의 흐릿함은 비록 간일(簡逸)하고 소탕(疏蕩)하기는 하나, 또한 절로 남들이 쉽게 엿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이제 또한 그 위인을 닮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기록하여 호사자(好事者)들에게 전하는 바이다. 하촌(夏村)의 병든 우객(寓客)은 쓰노라.

“當光廟靖難之際，安平大君以公子貴介挾文華墨自烹，遍交遊一時名流，人莫不歎艷而趨附

之. 堅亦以技被招納, 堅固絕筆, 公子特奇愛之, 不使暫離其門屏. 堅知時事危疑, 欲自疎而不得. 一日公子貨得龍煤墨丸於燕市, 亟招堅, 濡墨爲繪事, 適公子起入內, 還則失龍煤所在. 公子責怒侍婢, 婢輩自卞置疑在堅, 堅起奮袖自明, 墨忽墮堅懷中, 公子遽怒叱出之, 勿使更近其門. 堅默然暫走出退, 歸伏自紬, 事遂哄傳一世. 俄而公子離大夏, 其出入門下者, 無不連累以死, 堅則獨以是免焉, 人始異之. …… 余固不識畫, 然觀此幅, 其水石之蒼莽, 風煙之依微, 雖簡逸疎蕩, 而顧自有人未亦窺者, 豈亦象其人而然幾, 是爲識, 以傳諸好事者. 夏村病寓書.”²³⁾

위의 인용문은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윤희(尹鑄)의 글이다. 이 글은 본래 안건(安堅)의 비범한 능력을 강조하고자 지은 글인데, 호사자(好事者)들에게 전(傳)해지는 바라고 했으니 당시에 빈번하게 구전으로 전승되었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의 축은 바로 안평대군과 안건의 관계이다. 이야기의 요지는 안평대군이 안건을 사랑하여 곁에 두고자 했지만 안건은 당시 안평대군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우연히 용매묵을 훔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서 묘사되는 안평대군의 모습은 문장을 즐기면서 사람들과 두루 교류하던 문인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윤희가 이해한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윤희는 안건이 그린 산수화인 <<적벽도(赤壁圖)>>에 대해 예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건의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하였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안평대군을 부정적으로만 형상화하고 있지 않다. 앞서 죄인의 이미지가 희석되면서 문인의 이미지가 강화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평의 총명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 이 이야기가 강조하고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원인은 ‘안평대군의 최측근이었던 안건이 어떻게 난(亂)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에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안건이 시류(時流)를 읽고 안평과 멀어지기 위해 용매묵을 훔쳤을 가능성과, 둘째는 그 반대로 안평대군이 안건을 아끼는 마음에서 고의적으로 용매묵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몄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²⁴⁾ 즉, 후

23) 尹鑄, 「書權生所藏安堅山水圖後」, 『白湖全書』 제24권 「跋」, 慶北大出版部, 1974, 1012-1013쪽.

24) 후자에 대해서는 『문화원형백과』의 「무계정사길」의 이야기에서 착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백호전서는 안건이 화를 면하기 위해 안평대군과 연을 끊고자 일부러 먹을 훔쳤을 거라는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상향을 함께 추구하던 심우가 먹 하나를 훔친 것에 안평대군이 화를 냈다는 것이 이상하다. 심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안평대군이 스스로 꾸민 일은 아니었을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하였기에 본고의 논지와 유사하다. 하지만 본고는 안평대군이 행동한 원인을 같은 이상향을 추구하는 심우로서가 아닌 재능있는 문인을 아끼는 마음에서 행동했을 것으로 본다.

자는 이야기 어디에도 안견이 스스로 용매묵을 흠쳤다고 서술되어 있지 않는 점을 보아 그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안견은 궁중의 화사(畫師)로 있었는데 그가 용매묵을 도둑질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만약 흠쳤다고 해도 안견을 평생토록 후원한 안평대군이 묵(墨) 하나로 그를 내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윤희가 해석한 것처럼 안견의 비범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평대군의 재능이 뛰어난 명류(名流)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발현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안평대군의 죄인의 이미지가 희석되면서 필법에 대한 세간의 이야기와 함께 섞여 오히려 당시 문화를 주도하고 사랑했던 문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생겨나 세간에 구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안평대군의 모습은 정치의 삶과 문인의 삶이 공존했고, 그 사이에서 갈등했던 안평대군의 모습을 잘 묘사해내고 있다. 정치에 깊이 관여될수록 신변의 보장과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문(文)에 더욱 심취하게 되었고, 따라서 안견에게 ‘몽유도원도(夢遊桃園圖)’를 그리게 하며 그와 비슷한 공간인 비해당(匪懈堂)을 건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운영전> 내에서 안평대군이 시문을 즐겨하고, 김진사와 같이 어리거나 자질(資質) 있는 문인들을 자신의 거처로 초빙(招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의 정치의 삶과 문사의 삶의 중간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우회적으로 그려내고 있음을 알려준다. 즉, 그가 문(文)에 심취할수록 정치에 관련된 그의 죄는 희석될 것이며, 무고한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결국, <운영전>에서 안평대군의 문사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정치적인 이야기는 없애버린 것도 무고한 이미지를 크게 확장시켜 그의 삶에 공감하게끔 만든 수단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3. 연민의 이미지 발생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은 세종대왕 사후 수양대군과의 권력 쟁투에 패배하여, 조선 초기 죄인의 신분으로 기록되게 되며, 역모(逆謀)의 죄를 지은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에 남구만(南九萬)과 오도일(吳道一) 등과 같은 문인들이 그의 자취를 찾아 인간사(人間事)의 허망함을 노래한 바 있다.²⁶⁾

㉠ 무계의 깊은 골짜기에 새소리 구슬픈데, / 武溪深洞鳥聲悲
비해당 높은 집터를 분별할 수 없구나. / 匪懈高堂不辨基

25) 그의 문학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이종묵, 「安平大君의 문학 활동 연구」,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2002.

26) 이종묵, 「安平大君의 문학 활동 연구」,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2002, 273쪽.

호화로운 의기는 참으로 꿈결 같은데 / 意氣豪華如夢裏
 다만 유묵을 가지고서 당시를 상상하네. / 只將遺墨認當時²⁷⁾

② 왕손의 옛집은 구름이 숲에 걸려 있는데 / 王孫故宅即雲林
 풀에 잠긴 황량한 터를 지나는 객이 찾는다. / 草沒荒墟過客尋
 노래하고 춤추던 곳은 손으로 잡힐 듯한데 / 歌榭舞欄疑指點
 골짜기의 꽃과 산의 해는 아름답게 떠오르네. / 洞花山日媚登臨
 고갯길은 좁아 절로 천 번을 도는데 / 巖蹊自作千回細
 봄 개울은 한 척이나 더하여 깊어졌네. / 春澗新添一尺深
 홀연 문수사에 가까워져 깨달으니 / 忽覺文殊僧寺近
 저녁 종소리 들려와 속세를 일깨운다. / 晚來鐘磬醒塵心²⁸⁾

17세기 당시에 안평대군의 궁궐터는 문인들에게 인기가 많던 소재였다. 즉, 그가 거처하던 무계정사(武溪亭舍)나 비해당(匪懈堂)의 폐허된 모습은 오랫동안 문인들의 소재로 활용된 맥수지탄(麥秀之嘆)의 주제와 궤(軌)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시들은 영화로운 과거시절을 뒤로하고 현재는 풀만 자라고 있는 모습에서 그 허망한 감정을 읊은 것이다. 다시 말해, 기억하고 있던 옛날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에 대한 한탄(恨歎)이다. 하지만 이들 문인들은 안평대군으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였고, 따라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안평대군의 시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인들이 안평대군에 대해서 시를 읊는 원인은 안평대군의 일에 대한 비회(悲懷)가 바탕이 되어 있다.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시문(詩文)과 서예, 그림, 가야금 등 예술분야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었다. 자신이 좋아한 예술과 생존을 위한 정치 사이에서 파멸한 왕자의 이야기가 증거로 남겨진 장소는 문인들에게 비회의 감정으로 다가왔고, 이를 문학적 영감을 얻는 소재로 활용했던 것이다. 즉, 문인들이 위와 같이 시를 읊은 것도 궁극적으로 안평대군에 대한 연민(憐憫)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⁹⁾ 다시 말해, 문인들은 안평대군의 궁궐터에서 당시 화려했던 시절을 상상하고, 동시에 그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발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인들의 정조(情調)는 <운영전> 창작에 큰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

27) 南九萬, 「見安平書刻本有感四首」, 『藥泉集』 권1, a131-424d; 총 4수 중 두 번째 수록된 시이다.

28) 吳道一, 「匪懈堂舊址」, 『西坡集』 권7, a152-133b.

29) 쇼펜하우어는 연민이 타자의 고통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이며, '추리'에 근거한 것이거나 자신의 입장을 타자의 마음속으로 '바꿔놓는' 어떤 인위적 방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민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막스 셸러 著, 이은상 譯, 『공감의 본질과 형식』,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58쪽.

라서 이러한 부분은 남구만의 「見安平書刻本有感四首」나 오동일의 「匪懈堂舊址」에서 뿐만 아니라 <운영전> 텍스트 내에서도 비슷한 정조의 모습이 보인다. 그것은 바로 유영이 읊은 <여산(廬山)>의 한 구절로 작품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즉, 유영의 <여산>은 소환의 매개자로서의 기능과도 관련이 된다. 유영은 서쪽 동산에 자리를 옮긴 후 그곳의 바위에 앉아 소동파의 시 중 <여산(驪山)>의 일부 구절³⁰⁾을 읊조린 후 곧이어 가져온 술을 다 비우고 가상세계(꿈)에서 김진사와 만나게 된다. 이때 운영은 유영을 반기면서 “오늘 저녁 옛 연인을 해후한 이곳에서 또 뜻하지 않게 가객(佳客)을 만나게 되었구나(今夕邂逅故人之處, 又逢不期之佳客).” 라고 하며 시녀에게 일러 술을 가져오게 한다. 김진사가 뒤에 밝혔듯이 자신은 옥황상제를 모시는 관리(香案)로 잠시 틈을 내어 속세의 수성궁에 찾아와 ‘해후(邂逅)’ 했다고 한 것을 볼 때 천상세계에서는 운영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³¹⁾ 그렇다면 이들은 각자 천상세계에 있다가 무슨 연유(緣由)로 인해 오랜만에 수성궁에서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운영은 유영을 보고 ‘가객’으로 칭한 것에 주목해보자. 이것은 유영이 현실세계에서 읊은 <여산>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천상세계 혹은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그녀에게 들렸음을 반증한다. 그 이유는 운영과 김진사가 유영을 보고 흔쾌히 맞이하는 부분에서 그의 능력을 한눈에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 그들의 슬픈 사연을 전달해줄 반가운 손님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천상세계에 있는 그들이 유영의 가상세계에 나타난 이유는 유영이 낮에 읊은 <여산>이라는 시에서 감정적으로 공명(共鳴)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들은 우연히 수성궁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유영이 읊은 시구를 듣고 그것을 매개로 수성궁에 소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김진사와 운영은 천상세계에 있지만 그와 동시에 수성궁에 머물면서 어떠한 정조(情調)³²⁾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망령들인 셈이다. 정리하자면, 앞의 남구만과 오동일의 시처럼 옛 안평대군의 거처(居處)의 퇴락한 모습을 보고 느낀 정조가 바로 <운영전> 창작의 핵심 주제인 것이다.

이들 정조(情調)의 공통점은 바로 안평대군의 연민(憐愍)이다. 이 연민이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한 꿈을 쟁취하고자 나아간 인물의 비극적 파멸이다. 즉, 이것은 안평대군의 경우 정치의 삶과 문인의 삶의 괴리로 인한 파멸을 보여주는 것이고, 작품의 등장인물들에게서는 이를 끝

30) ‘내가 조원각에 올라보니 봄은 반쯤 지났는데, 땅 가득히 떨어진 꽃 쓸어버릴 사람조차 없네.’ (我上朝元春半老, 滿地落花無人掃.) 이상구 앞의 책, 98쪽.

31) 이것은 운영이 유영에게 술을 권하면서 부르는 사곡(詞曲)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깊고 깊은 궁궐에서 이별한 옛 연인/ 하늘이 맺어준 인연 다하지 않아 뜻밖에 만났네./ ……// [重重深處別故人/ 天緣未盡見無因./ ……//” 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김진사와 운영은 우연하게 수성궁에서 만났다.

32) 이에 대해 전성운은 <운영전>의 작품 전반을 관통하고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가 비회(悲懷)의 정조에 있다고 보고, 운영과 김진사의 비회의 정조가 유영을 이끌고 있거나 공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전성운, 「운영전의 인물 성향과 비회의 정조」, 『어문논집』 56, 민족어문학회, 2007, 119-122쪽 참조.

어와 투영하여 현실과 개인의 괴리(乖離)에서 발생한 이상향의 파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작품에서 운영과 김진사는 그들이 꿈꾸는 자유³³⁾ 혹은 일탈³⁴⁾ 이상향에 다가갈수록 그 괴리가 커지고, 이에 대해서 큰 고뇌를 하게 되는 모습을 자주 묘사한다. 따라서 <운영전>은 안평대군을 소재로 하여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시의 정조나 감정들은 인간의 고뇌를 보여줄 수 있는 간접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즉, 작가가 안평대군을 소재로 택한 것은 그와 비슷한 삶의 사람들을 그린 <운영전>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상향의 고뇌에 대한 공감을 마련하기 위함임을 생각할 수 있다.

IV. 공감의 전염

앞서 살핀 바대로 <운영전>의 등장인물들은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고 공감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안평대군을 소재로 끌어들여 그의 이미지에 의존해 조금 더 쉽게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으며, 따라서 작품 내에서도 당시 안평대군의 이상주의적인 이미지와 그것의 파멸로 인한 비극적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또한, 작품에서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공감이란 바로 이상향에 대한 고뇌 혹은 갈등이다. 등장인물들이 지향하는 바는 모두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운영전>의 독특한 점은 등장인물마다 각자 다른 이상향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인식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작가는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줄 것을 요청하는 특이한 글쓰기 방법을 사용한다.

즉, <운영전>에서 설득의 장면은 궁녀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점은 서사 전개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초사를 통해 안평대군의 인식을 바꾸게 한다는 점에서 설득의 장면은 <운영전>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글쓰기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작가의 서술 의도와 밀접하게 연관되기에 중요하다.

운영의 비밀을 알게 된 자란은 운영과 김진사가 만나기 쉽게 하기 위해 완사(浣紗)의 장소를 소격서동으로 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남궁의 궁녀들은 자란의 설득에 대해 차례로 유교적 관점에서 자란의 말을 반박하고, 자란의 언사에 거짓이 있음을 알아차리며 반대하고, 점을 친 후 운영

33)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92쪽.

34) 안창수, 「<운영전>에 나타난 규범과 일탈의 변증법」,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2011.

과 안평의 관계, 안평의 금기를 언급하면서 반대하게 된다. 이들의 반대는 모두 사회적인 통념들을 근거로 들어 반대한 것이다. 자란의 급진적인 사고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이는 자란의 말과 남궁의 궁녀들의 말에는 근본적으로 대별되는 상충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자란이 개인의 자유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남궁의 궁녀들은 사회적인 통념에 의한 금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대화는 이런 이데올로기의 충돌이고, 이러한 충돌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부주인공들인 이들의 대화 내용을 세밀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란은 “일이 성사되지 못할 것을 알았” 기 때문에 남궁에서 퇴장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작가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먼저 완사의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서사가 다시 미뤄지게 되며, 남궁은 운영과 김진사의 비밀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할 수 없게 되어 김진사가 담을 넘어 수성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차단된다. 또한 이러한 공간을 마련한 작가는 애초에 자신의 논리를 다시금 타자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자란의 말을 통해서 남궁의 궁녀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남궁의 궁녀 중 비경의 설득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비경이 말했습니다.

“처음 남궁에 있을 때, 운영과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생사와 영육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었다. …… 며칠 전에 주군께 문안을 올릴 때 마루 앞에서 운영을 보았는데, 가는 허리는 비쩍 말라 끊어질 듯하고, 날빛은 초취했으며,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어 입에서 나오지 않는 듯했지. 운영이 일어나 절하려고 하는 순간 힘이 없어 땅에 엎어졌었어. 그래서 내가 부축해 일으키고 좋은 말로 위로하니, 운영이 대답하기를, ‘불행히 병이 들어 조만간 죽을 것이다. 나 같은 미천한 목숨은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 아홉 사람은 문장과 재주가 일취월장하여 훗날 아름다운 시문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할 것 같아 슬픔을 금할 수가 없구나.’ 하더라. 그 말이 하도 처절하여 나는 그때 눈물을 흘렸어.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운영의 병은 실로 님을 그리워한 때문이었어. 아아! 자란은 운영의 벗이로다. 죽기에 이른 사람을 하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자 하는구나. 오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어 저승에 가더라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요, 그 원망이 남궁에 돌아올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겠느냐? 『서경(書經)』에 이르길, ‘착한 일을 하면 온갖 상서(祥瑞)를 내리고, 악한 일을 하면 온갖 재앙을 내린다.’ 하였다. 지금 이 논쟁은 선(善)한 것인가? 불선(不善)한 것인가?” [飛瓊曰, 初在南宮時, 與雲英交道甚密, 死生榮辱, 若與同之, 今雖異居, 寧忍忘之. 前日, 主君前問安時, 見雲英於堂前, 纖腰瘦盡, 容色憔悴. 聲音細縷, 若不出口. 起拜之際, 無力仆地, 妾扶而起之, 以善言慰之. 雲娘答曰: “不幸有疾, 朝夕將死. 妾之微命, 死無足惜, 而九人之文章才華, 日就月長, 他日, 佳篇麗什, 聳動一世, 而妾不及見矣, 是以悲不能禁.” 其言頗極悽切, 妾爲之下淚, 到今思之, 其疾實在於所思也. 嗟呼! 紫鸞, 雲娘之友也. 欲

以垂死之人, 置之於天壇之上, 不亦難哉. 今日之計, 若不得成, 則泉壤之下, 死不瞑目, 怨歸南宮, 其有既乎? 書曰: “作善降之百祥, 不善降之百殃”今此之論, 善乎?不善乎?]

비경은 완사의 장소를 결정하는데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며칠 전 운영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본 그대로 궁녀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분명히 이 설득의 장면에서 운영은 완사의 장소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남궁의 궁녀들은 완사의 장소를 자란이 주도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란의 이야기와 언급이 중요할 따름이다. 하지만 비경은 갑작스럽게 관계없는 운영을 언급하면서 남궁의 궁녀들을 설득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수성궁의 궁녀들은 운영의 이상 징후를 어느 정도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안평의 명에 의해 궁녀들이 부연시(賦煙詩)를 지을 때 운영의 시에서 ‘님을 그리워하는 뜻이 드러나 있던 것’을 미루어 안평과 궁녀들은 의심을 사게 되었고,³⁵⁾ 이로 인해 안평의 명으로 궁녀들은 서궁과 남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비경은 그들의 완사 장소에 대한 논의가 운영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비경만이 아니라 남궁의 궁녀들 역시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어느 정도 알아차렸을 것이다.³⁶⁾

작가는 ‘가는 허리는 비쩍 말라 끊어질 듯’, ‘낮빛은 초췌’,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어’와 같은 비유적인 수사법을 사용하여 운영을 표현하고 있다. 그 후 운영이 안평의 앞에서 쓰러진 사건을 궁녀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비경이 운영의 가녀린 모습을 형상화한다면 그녀에 대한 동정 의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조하게 된다. 이차적으로 비경은 이런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남궁의 궁녀들에게 부끄러움을 자아내게 하는 이점이 있다. 운영의 가녀린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할수록 궁녀 자신들의 모습이 대비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며, 지금까지 완사 장소 결정에 반대한 궁녀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운영을 돕지 못한 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위치하게 된다.

거기에 뒤이어 나온 운영의 말은 나머지 궁녀들을 위한 복을 빌고 있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보다 의리를 지키고 있는 운영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나머지 궁녀들의 부끄러움을 더하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 바로 뒤에 언급된 자란의 행동에 대한 칭찬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의적인 수사법은 운영을 위해 완사의 장소를 소

35) 운영은 부연시를 짓고 안평의 의심을 받게 된 후 궁에서 궁녀들에 의해 또다시 시험받게 되는데 그때 포도시를 짓게 된다. 하지만 후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비록 이 시로써 동료들의 의심을 풀긴 했으나, 저에 대한 못 사람들의 의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36) 그 이유로 유일하게 안평대군이 궁 외부인에게 10궁녀들의 존재를 밝힌 존재가 김진사라는 점, 그런 김진사와 궁녀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했다는 점, 김진사가 시를 쓸 때 먹물이 운영에게 튀었고 운영이 그것을 닦지 않았다는 점, 그로 인해 부연시에서 운영의 시에 김진사를 향한 마음이 드러났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포착해 본다면 쉽게 궁녀들은 운영이 김진사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격서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에 힘을 싣고 있다. 따라서 비경은 운영이 아픈 이유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到今思之, 其疾實在於所思也), 서궁과 남궁의 정보의 양은 같아지게 되었다. 즉, 비밀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을 공유하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지게 되고, 이 사실을 알고도 운영을 돕지 않는다면 원망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위협으로 궁녀들을 설득시킨다.

마지막으로 비경은 『서경』의 「伊訓」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여 지금의 논쟁이 옳한 것인지,不善한 것인지 설의법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이것을 유심히 살피면, 지금의 논쟁이 다만 완사의 장소를 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운영의 처지를 생각해서 소격서동으로 완사의 장소를 결정한다면 주군인 안평에게 不忠과 不信을 행하는 것이니 옳지 못한 것이고, 원칙대로 행하자니 운영에게 친구로서의 義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니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의 주체가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작품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다. 여기서 작가는 앞서 자란이 말한 개인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자란의 입을 통해 “권도(權道)를 썼으되 사리에 맞으면 이것 또한 정도(正道)(權而得中 是亦正矣)” 라고 언급하면서 남궁의 궁녀들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해결방안을 알려주고 모두 설득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남궁의 사람들도 자란의 설득을 통해 인식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운영과 서궁 궁녀들이 가지고 있던 억압된 공간으로 수성궁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녀들은 자란의 말에 눈물을 흘리고, 훌륭한 가르침으로 인식하고, 슬픈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모든 일에서 서궁과 남궁의 궁녀들은 비밀을 공유하게 되고, 공동체적인 행동을 일삼는다. 그것이 가장 극화되어 투영된 것이 바로 초사의 장면이다.

초사의 장면에서도 역시 자란의 설득을 통해 안평대군의 인식에 변화가 생긴다.

① 대군은 우리들의 초사를 다 보고 나서, 또다시 자란의 초사를 펼쳐놓고 보더니 점차 노기가 풀리었습니다. [大君覽畢 又以紫鸞之招 更展留眼 怒色稍霽]

② 대군의 분노가 점차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 가두고, 그 나머지 사람은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大君之怒稍解 囚妾于別堂 而其餘皆放之]

①에서 ‘점차 노기가 풀렸다(怒色稍霽)’ 고 한 것은 자란의 설득 전략이 안평에게 통한 것으로 풀이 된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소옥의 말을 통해 ②와 같이 완전히 화가 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안평대군이 화가 풀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우선 궁녀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저버리지 않고 친구에

대한 신의(信義)를 지킨 것이 기특하여 화가 풀렸을 경우다.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궁녀들은 안평 자신에 대한 忠·信·義를 모두 저버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남궁에서의 궁녀들처럼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다른 하나의 경우는 궁녀들이 공유하고 있던 세계관을 초사를 통해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안평대군은 왕자의 신분으로 왕권이 불안하면 언제나 숙청의 대상 중 1순위였다. 따라서 <운영전>에 묘사되는 안평대군은 정치적인 것 보다 심미적이고 학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 도학자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내면으로는 '일탈'을 꿈꾸고 있는 한 인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왕자의 신분이기도 한 그가 중세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는 없기에 다만 궁녀들을 이해하고 풀어줄 뿐 소극적인 행동밖에 취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운영전>에서 인식이 변화하여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동적인 등장인물들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되고, 반대로 정적인 등장인물들은 부정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1. 자료집

南九萬, 「見安平書刻本有感四首」, 『藥泉集』 권1, a131-424d.

申欽, 《상촌선생집》 제52권, <求正錄> 上, 春城錄.

吳道一, 「匪懈堂舊址」, 『西坡集』 권7, a152-133b.

尹鑄, 「書權生所藏安堅山水圖後」, 『白湖全書』 제24권 「跋」, 慶北大出版部, 1974.

이대형 외, 「유영전」, 『삼방록』, 보고서, 2013.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조선왕조실록』, 숙종 26년 경진(1700, 강희 39), 9월 16일(을사).

『조선왕조실록』, 인조 18년 경진(1640, 승정 13), 3월 19일(경자).

2. 저서

Lubomir Dolezel, 「화자의 유형이론」, 김병욱 편/최상규 역, 『현대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1984.

막스 셸러 著, 이은상 譯, 『공감의 본질과 형식』,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알라이다 아스만 著, 변학수·채연숙 譯,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제레미 리프킨 著, 김정남 譯,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3. 연구논문

박일용, 「〈운영전〉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박혜진, 「〈운영전〉 이본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3.

소재영, 「〈운영전〉 연구」, 『아세아연구』 통권 41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9집, 한성대, 1990.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안창수, 「〈운영전〉에 나타난 규범과 일탈의 변증법」,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2011.

엄태식, 「〈운영전〉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염은열, 『공감의 미학, 고려속요를 말하다』, 역락, 2013.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이종묵, 「安平大君의 문학 활동 연구」,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2002.

장효현 외, 「운영전」, 『교감본 한국한문소설 전기소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장효현, 「17세기 몽유록의 역사적 성격」,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전성운, 「운영전의 인물 성향과 비회의 정조」, 『어문논집』 56, 민족어문학회, 2007.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

정희정, 「〈雲英傳〉의 액자기능과 서술 상황」, 『한국언어문학』 44, 한국언어문학회, 2000.

조용호, 「〈운영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황혜진, 「고전소설 소재 인물의 역사적 삶에 대한 연구 -〈운영전〉의 안평대군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공감의 글쓰기, <운영전>에 대한 토론

정상원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 박사과정

이 발표는 <운영전>에 나타난 글쓰기의 특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술 기법을 공감의 측면에서 살펴 그 효과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주제의식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작품은 오랜 기간 학계에서 주목받아왔고, 최근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소중한 연구 성과가 산출된 바 있다. 그동안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것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서술 기법에 주목하여 이를 작가 의식과 연결 지어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이 작품이 갖는 여러 겹의 액자 구조, 또는 이외의 서술상의 특징들을 단편적으로 논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운영전>의 서술기법에 주목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주제의식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진지한 논의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나 논쟁적인 토론을 벌이기에는 <운영전>의 서술기법에 대한 토론자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이에 몇 가지 느낀 점을 나열하거나 궁금한 점을 질문함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 발표문에서는 “<운영전>의 서술기법을 공감의 측면에서 살펴 그 효과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주제의식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운영전>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수용미학(受容美學)적으로 검토하고, 그 주제의식을 밝히도록 하겠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아래에서 제기한 대부분 질문들은 기실 이 발표문이 내세우고 있는 ‘공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공감’과 관련하여 우선 문제되는 것은, ‘공감’에 대한 관점이다. 발표문에서는 공감을, “관찰자가 가까이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는 것임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공감의 구조란, “작가가 만들어 놓은 기법이자 장치로서 독자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라고 한다. **혹 발표자는 작가가 의도한 것에 대해 독자가 그대로 감응하는 것을 ‘공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는 발표자가 언급한 수용미학적 분석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공감’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과연 <운영전>에서의 ‘공감’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공감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발표문을 통해 ‘누가’ 또는, ‘무엇을’에 대한 내용은 명확히 알기 어렵다.**

2장 공감의 구조 형성에서는 우선, <운영전>에 나타난 중층적 액자구조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액자구조를,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면서, **“단순히 서술자가 바뀐다고 해서 (작가) 자신이 펴내고자하는 바를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을 것”** 이기 때문에 또한, **서술자의 변화만이 아닌 청자의 변화도 주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작가는 **유영과 자란을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중층적 액자구조를 설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는 나아가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산출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1) **여기서 공감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한, 그것을 2) 공감하는 독자는 누구인가?** 한편, 상기 주장은 유영과 김진사의 처지를 유영과 자란이 공감하고, 독자는 청자이자 서술자로서 역할하는 유영과 자란이 느끼는 바를 그대로 공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설정한 서술자와 청자가 느끼는 바에 독자가 그대로 감응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3) **공감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4) ‘수용미학적’인 분석과 어떠한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가? 한편, 5) 서사세계 내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공감이 독자의 공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3장 안평대군의 이미지와 활용에서는 **“<운영전>이 창작된 17세기 당시의 안평대군에 대한 언급을 종합해 그 의식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작가가 어떻게 독자와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평대군에 대한 창작 당대의 의식과 작자의 의식이 궤를 같이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만 가능할 뿐인데, **당대의 의식이 작자의 의식에 어떻게 굴절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발표문에서는 당대 문인들이 가졌던 **안평대군에 대한 연민(憐愍)에서 생긴 측은지심의 정조(情調)가 이 작품의 창작에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이 **작품의 핵심주제**인데, **꿈을 쟁취하고자 나아간 인물들의 비극적 파멸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안평대군의 경우 정치의 삶과 문인의 삶의 괴리로 인한 파멸을 보여주는 것이고, 작품의 등장인물들의 경우에는 현실

과 개인의 괴리(乖離)에서 발생한 이상향의 과멸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리고 작가가 안평대군을 소재로 택한 것은 그와 비슷한 삶의 사람들을 그린 <운영전>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상향의 고뇌에 대한 공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1) 현재의 퇴락한 상황, 안평대군에 대한 연민, 등장인물들에 대한 연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가? 한편, 발표자는 <운영전>이 비슷한 삶의 사람들을 그린 소설이라고 했는데, 2) 독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공감하는가? 또한 3) 과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 3) 독자는 어떻게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상향의 고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가?

4장인 공감의 전염에서도 발표자는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공감이란 바로 이상향에 대한 고뇌 혹은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는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